

'4% 득표율' 정세균 경선 중도하차 **8**

 LG이노텍, 세계 최고 '친환경 마그넷' 개발 **11**

대면 서비스업의 붕괴, 자영업자 눈물 마를 날 없다

온라인 쇼핑 등 소비 트렌드 변화... 위기는 이미 팬데믹 전 시작
"업종 전환 등 구조적 문제 해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대면서비스업 붕괴가 가팔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대면서비스업 업황은 2015년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업황 개선은 어렵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계절조정지수)는 각각 전월보다 4.8%, 3.7% 감소했다. 대표적 대면서비스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유행이 번졌던 지난해 2월(-19.0%), 8월(-7.6%), 12월(-27.6%), 그리고 올해 7월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도·소매업 또한 7월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2월(03.9%)과 8월(-1.1%), 올해 5월(-1.6%)에 큰 충격을 받았다.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대면서비스업 업황 악화가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숙박·음식점업 중 여관업 생산(이하 경상지수)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감소세다. 음식점업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한 뒤 이듬해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로 전환됐다. 주점업도 2018년부터 3년째 감소세다.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공급업, 경기장 운영업 등도 추세적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업종이

다. 이들 업종의 생산 감소는 코로나19 유행과 무관하게 진행돼온 추세적 불황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자연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면서비스업 불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비 트렌드 변화다. 온라인쇼핑 증가, 캠핑문화 확산, 밀키트 등 간편식 보급, 혼술(혼자 술)문화 확산, 플렉스(FLEX·과시 소비) 등 2010년 중반부터 소비 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창업은 여전히 외식 프랜차이즈 등 포화 업종에 집중돼 있다. 산업 내 부가가치 총량은 줄어드는데, 경쟁자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소비 인센티브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단기 처방으로는 대면서비스업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면서비스업 위기를 '코로나타'으로만 몰면, 반도체 호황에 고무돼 제조업 위기를 보지 못했던 전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정영순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비대면·온라인 소비 패턴이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대면 소비가 이전과 같이 100%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이나 대출유예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김해지 기자 heyji@



"머늘아 보고 싶었다"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졌다.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정 내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칫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 면회실에서 신모(94) 씨와 며느리 박모(66) 씨가 만나 손을 꼭 잡고 있다.

<카카오 의장>

김범수 겨눈 칼끝... '사면초가' 카카오

카카오를 정조준한 정부의 전방위 규제가 시작됐다. 카카오 관련 흥흥한 민심이 카카오그룹은 바람 잘 날이 없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카카오 총수(동일인)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부터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 김 의장의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 및 허위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회사로 8월 기준 카카오 10.59%, 카카오게임즈 1.00%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4월 기준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

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

카카오페이, 일부 서비스 중단
"빅테크 규제 적절" 여론도 악화
그룹 시총, 하루 새 4.7% 증발

장의 부인, 아들, 딸 등 가족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카카오의 '눈치 보기'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앞서 핀테크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펀드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대부분 행위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25일까지 취득하라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반려동물·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도 개편

해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펀드 상품을 선택하면 투자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중개하는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의 팝업이 뜬다.

카카오에 대한 민심도 악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카카오그룹 상장사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전일 대비 5500원(-4.23%) 하락한 12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카카오뱅크(-6.24%), 카카오게임즈(-2.71%), 넷플릭스(-1.19%) 등도 내렸다.

주가가 내리면서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은 총 92조390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025억 원) 대비 하루 만에 4조6635억 원이 증발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ISMS 인증' 가상자산사업자 40곳

"추가인증 나올 가능성 낮아... 미인증 거래소 폐업 피해 주의"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 신고 기간 종료일(24일)이 임박한 가운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가 총 40개사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을 제외하고 신고기한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인증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40개사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후 7개사가 증가해 28개사(21~28)로 늘어났다.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거래업자 중에서는 고팍스와 업비트, 코

빗, 코인원, 빗썸, 한빛코, 캐서레스트, 텐안텐, 바들기잡, 플라이빗 등이, 지갑사업자 중에서는 토큰뱅크와 옥렛, KDAC, 마이키핀, KODA, 하이퍼리움, nBlocks, 볼트커스티 등이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명단 공개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과대 홍보 사례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최신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 중단에 대비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수사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징계 절차에 대한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현대차 회장>

정의선 "로봇은 인류 위한 수단, 일자리 감소 크지 않아"

국회 모빌리티 포럼서 발표
로보틱스 산업 중요성 역설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이 로봇사업과 관련해 "오로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앞으로 안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13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 3차 세미나에 참석해 정지권을 상대로 로보틱



스 연구개발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의 기술에 대해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와 우리 후손을 포함, 모든 인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며 "로보틱스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오로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앞으로 안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로보틱스 시대 도래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로봇이 많이 대체하게 될 것이며 그 로봇을 유지하고 정비하고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된다"며 "많은 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자리의 감소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바이오벤처 3사 “내년 상반기 mRNA 백신 상용화 목표”

큐라티스-아이진-진원생명과학-보령바이오파마 컨소시엄 구성
대량 생산 플랫폼 구축·조건부 허가 신청 등 목표 업무협력 추진

‘국산 1호 mRNA (메신저리보핵산·전령RNA) 백신’ 타이틀을 두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경쟁을 벌인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백신센터), 국내 바이오벤처인 큐라티스·아이진·진원생명과학 및 백신 생산업체인 보령바이오파마는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mRNA 백신 제품화를 선언했다. 앞서 6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 등 3개 기

업이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결성해 내년까지 국산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을 가시화한다고 밝힌 바 있어 두 협회를 주축으로 국산 mRNA 백신 개발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15일 오후 2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인프라 활용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 (mRNA 벤처 컨소시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백신센터는 백신의 최신 기술동향 정보

업체	역할	비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임상검체분석 및 품질시험	지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기업지원 및 대외협력채널지원	지원
아이진	mRNA 후보물질 개발	개발
진원생명과학	IVT 플라스미드 생산 및 원액생산공정 보유	개발
큐라티스	IVT용 엔자임, mRNA 및 LNP생산	개발
보령바이오파마	충진 및 완제품포장(동결건조)	생산

를 제공하고 제품화 컨설팅, 품질검사 시험법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연구·생산하는 14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컨소시엄 참여사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 등을 기업 간 1대1 매칭해 상호 보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주축이 됐다”고 말했다.

큐라티스와 아이진은 mRNA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진원생명과학은 mRNA 백신 원액 cGMP 생산기술과 플라스미드 cGMP 대량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범용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연구 중이다.

mRNA 벤처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까지 △큐라티스와 아이진이 임상시험 중인 mRNA 백신의 대량 생산 플랫폼 구축과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업무 협력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개발 △연간 5억 도스 생산 기술 및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미선 기자 only@

〈매출·영업의 고용 타격〉

상장사 ‘3중 충격’ ... “중소·영소사업장 더 비관적”

한경연 1816곳 조사

2곳 중 1곳 직원 수 줄고
13% 매출·영업이익 감소
경제 전반 활력 저하 가능성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필요

상장사 10곳 중 5곳가량이 최근 1년 새 직원 수를 줄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2021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1816개사의 상반기 직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2곳 중 1곳(47.3%·859개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직원 수를 줄였다고 13일 밝혔다.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코스피 시장의 직원 규모 축소 기업 비율이 코스닥 시장보다 높았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조사대상 688개사 중 333개사(48.4%)가 올해 상반기 직원 수를 줄였다. 코스닥 상

장사는 조사대상 1128개사 중 526개사(46.6%)가 직원 규모를 축소했다.

2019년부터 3년간 직원 감소 상장기업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전 추세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원 수를 줄인 상장기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창궐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직원 규모를 줄인 상장기업 비율은 47.3%(859개사)로, 지난해 51.4%(933개사)보다 4.1%포인트(p)(74개사) 줄었지만 2019년 43.0%(781개사)보다는 4.3%p(78개사) 늘었다.

상반기 기준 상장기업 전체 직원 수는 2019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장기업 전체 직원 수는 144만1000명으로 지난해(145만3000명)보다 1만2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48만6000명)보다는 4만5000명 줄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올해 절반 가까운 상장기업들이 직원 규모를 줄인데다 상장기업 전체 직원 수도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고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고용 충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장사 10곳 중 1곳(13.2%, 240개사)은 직원 수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동시에 줄었다. 매출액·영업이익·직원 수가 모두 줄어든 기업 비율은 코스닥 시장이 13.8%(156개사)로 코스피 시장(12.2%, 84개사)보다 높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매출액, 영업이익, 직원 수는 기업의 성장성, 현재의 수익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데,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할 상장기업들이 ‘삼중 타격’을 입은 것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 고용 유연성 제고 등 기업의 고용 여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알림

이투데이 경력기자 공채

경제신문 이투데이를 시장을 선도할 능력 있는 경력기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및 자격

구분	모집부문	인원	제출서류
이투데이	취재기자	0명	- 기명기자 3건 이상 - 기자칼럼 3건 이상
	디지털 기획자	0명	스토리보드 작성 및 플랫폼 운영 경력 기술서
이투데이피엔씨 (월간 시니어 잡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취재기자	0명	- 기획기사 3건 이상 - 인터뷰 기사 3건 이상

- 공통사항: 경력 3년 이상자,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기간: 9월 17일(금요일) 마감
- 전형방법: 1차 서류접수 → 2차 면접(개별안내)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 입사지원서: 이투데이 홈페이지 (recruit.etoday.co.kr) 접속 ▶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및 문의: - E-mail 접수: recruit@etoday.co.kr
- 문의: 총무부 인사담당자(02-799-2693, 2695)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
한수원이 만들어 갑니다

요즘 내 친구 한수원이 엄청 바빠워

미세먼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장난 날씨도 고쳐주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고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 만들고 있거든요

음식·쇼핑 비대면 파고드는데 대면 업종은 '치킨게임'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6.2조 최고... 소매 판매액 최저
자영업 포화상태인데 창업 증가세... 취업난 2030도 가세

외식하기보다는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다. 마트나 시장에 나가기보다는 인터넷 쇼핑으로 저녁장을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는 '비대면' 소비의 흔한 풍경이다.

비대면 소비 경향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 음식배달 이외에도 식료품, 옷,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면서부터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모바일 주문이 가능해지는 상품군들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소비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앞서 통계청은 3일 '온라인쇼핑 동향'을 통해 7월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이 16조1996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한 비중은 28.3%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2020 식품소비 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먹거리를 사는 빈도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은 51.7%로, 전년 대비 16.3%p(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주요 이유는 '배달해 줘서(22.5%)'가 가장 높았다. 상품의 가격·품질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비대면 소비 자체가 주된 이유로 작용하는 셈이다.

비대면 서비스가 호황을 맞았지만, 대면 서비스업 매출액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는 77.0(2015년=100, 6·7월은 잠정치)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가장 낮았다. 불변지수는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출 수준을 보여준다.

음식점·주점업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이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해 1~7월 누계 기준 판매액지수는 83.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7월의 누계 지수도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95.3이며, 같은 기간(1~7월) △2016년 101.2 △2017년 99.8 △2018년 96.8로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면서비스업종의 창업은 계

속 증가하고 있다. KOSIS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난 78만5700개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업체가 증가했다. 실질 매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업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타

격을 입은 외식 프랜차이즈의 출점이 폐점보다도 많은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8일 이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신규 개점률은 21.3%로, 폐점률 11.7%를 크게 웃돌았다. 가맹점 1개가 문을 닫을 때, 가맹점 2개가 새로 생긴 셈이다.

대면서비스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이미 포화상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24.6%)로 높다고 밝혔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달했다.

어윤선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요즘에는 코로나에 불황이 겹쳐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젊은 2030 세대가 소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공유주방·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김혜지 기자 heyji@

대면서비스 수년째 '부진의 늪' 신산업 창출 등 구조조정 절실

5명 중 1명 대면서비스업 종사
폐업 땀 취약계층으로 내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위기는 제조업 위기와 닮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수출지표 개선에 고무돼 반반도체 불황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충격에 매몰돼 대면서비스업의 추세적 불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제조업 균열, 작년어야 대응 = 한국의 제조업 위기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생산지수(원지수)는 2014년부터 7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등 제조업 중간재 생산은 2016~2018년 유례 없는 호황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생산·출하·수출 등 관련 지표들도 개선세를 이어갔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3%대'를 달성했다.

D램 단가 하락으로 반도체 호황이 꺾이고 관련 제조업 지표가 급감하면서 '진짜 위기'가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메모리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전기차 등 빅(BIG)3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에 착수했다. 전통 제조업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6년 만의 일이다. 당장은 기저효과 등으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대면서비스업의 불황이 시작된 건 2010년대 중반부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붕괴가 가팔라졌을 뿐, 추세는 수년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코로나19 변수를 제외해도 대면서비스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일시적인 코로나19 충격 대응만큼 중요한 게 신산업 창출, 업종 전환 등 대면서비스업 구조조정을 통한 추세 반전이다.

◇'경제 허리' 몰락 막아야 = 대면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은 경제 허리인 중산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절실하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중심의 대면서비스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몰린 대표적인 산업이다. 주된 취업자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다. 대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가구 주소득원인 경우가 많다. 폐업·실직 등으로 무너지면 기댈 곳이 없다는 의미다.

경제 전반도 대면서비스업 의존도가 높다. KOSIS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은 7월 기준으로 19.8%에 달한다. 추세적으로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업자 5명 중 1명은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황이다.

대면서비스업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부진의 늪에 빠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업종 포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런 상황에 기름이 됐다. 추가적인 매출 감소에 빔을 내 버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대출금 규모는 293조9000억 원에 달한다. 근로자들은 키오스크 등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크지만, 이에 대한 대응만으론 대면서비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면서비스업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는 중산층·취약계층에게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연적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대면서비스업 구조조정은 선택보다 필수에 가깝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면 소비의 수요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과당 경쟁이 일어나던 상황에서 일종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온라인 소비로의 변화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자영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카드와 페이의 미친케미

스탬프 서비스
KB Pay 이용횟수 3회당 1천 포인트 적립
*간당 1만원 이상 이용, 동일가맹점 1일 1회에 한함, 월간적립한도 5만원

출석체크 서비스
주단위 매일 KB Pay 이용시 1천 포인트 적립
*연당 1만원 이상 이용에 한함

더 없이 편한 Pay와 원 없이 주는 카드의 만남
KB Pay 챌린지카드

※연회비: 국내 해외겸용 1만 5천원 * 모바일 단말기 국내 해외겸용 9천원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불균이 부정행위 경우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모든 수수료는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를하시기 바랍니다. * 연신금융협회(신용보증기금) 021-026-0747435(2021.08.22~2021.12.31)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o, 최고 연 20%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생사 갈림길 선 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물밑 협상 중

가상자산 거래소 마감 D-5

당국, 17일까지 존폐 공지 권고
4대 거래소 제외한 중소형사
원화마켓 신고 사실상 불가능
코빗보다 거래량 많은 고팍스
실명계좌 확보 마지막 스퍼트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 (총 40개)

기업명	서비스명	기업명	서비스명	기업명	서비스명	기업명	서비스명
스트리미	GOPAX	피어테크	GDAC	오케이비트	OK-BIT	코인플러그	마이키핀
두나무	업비트	에이프로코리아	에이프로빗	골든뮤츠	빗콘	한국디지털에셋	KODA
코빗	코빗	후오비	후오비	더블링크	Metavex	하이퍼리움	하이퍼리움
코인원	코인원	코엔코코리아	코인엔코인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네오블라이	nBlocks
빗썸코리아	빗썸	오션스	프로비트	플랫다이엑스	플랫다이엑스체인지	카르도	볼트카스터디
플루트스튜디오	한빛코	뱅크	BORABIT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위메이드트리	WEMIX
뉴링크	캐서레스트	코어닥스	코어닥스	프라뱅	프라뱅	베이직리서치	basic.finance
텐앤텐	텐앤텐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와우팍스의체인지	wowPAX	캠퍼	비트로
차일드리	비둘기지갑	엑시아스프트	코인빗	헤슬란트	도르뱅크, 옥렛	PayProtocol AG	Paycoin Wallet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아이빗익스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보노테크놀로지스	CoinUs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의 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 중에서 4번째로 많은 고팍스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래소로 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팍스(Gopax)의 운영사 스트리미는 현재 일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협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팍스는 원화 결제를 허용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다음으로 평가받는 거래소다. 상장 코인 수 대비 거래량도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코인에 대해 자체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는 몇 안 되는 거래소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초기 가상자산 시장에서 꽤 탄탄한 거래소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거치면서 부침을 겪었다.

고팍스와 함께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가장 컸던 중소형 거래소 지닥(GDAC)은 은행들의 실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닥은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의 실사를 거쳤지만, 아직 어떤 은행도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닥은 은행의 실명계좌 미발급 이유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기준 위험평가의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 고위험보다 당국에서의 명확한 기초 확인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닥이 금융당국과 은행에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사실상 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고팍스의 신고 여부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의 지형도 달라진다. 고팍스가 통과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금껏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4대 거래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다만 고팍스가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거래소 신고를 마치면 빅5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식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사실상 못박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TF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실무진 등과 당정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등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유동수 TF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명계좌가 개설된 것이 4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계좌가 미비한 곳이 24개,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것이 14개, 인증 미신청 업체가 24개"라며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문어발 확장에 발목 잡힌 카카오

김범수 '상생협력안' 카드 만지작... 여론은 '글썸'

국민 10명 중 5명 "규제 적절한 조치" 내달 카카오페이 상장 차질 빚을수도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IT 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하면서 빅테크 산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집중적인 규제 타깃으로 떠오른 카카오는 무리한 '문어발' 식 확장이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도 카카오에 우호적이지 않다. 절반 이상의 국민은 규제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직접 상생안을 들고나올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카오에 대한 규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술어린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카카오의 사업 확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IT 기업의 독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꼽고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벌어진 갈등을 짚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가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사안에 따라 다각도로 질문해 현안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의장은 앞서 2018년 포털의 뉴스 편집 논란과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과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안을 두고 국민 여론도 카카오에 비우호적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규제 압박에 국민 10명 중 5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51.0%였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35.3%로 적절하다는 답보다 적었다. '잘 모르겠다'는 13.7%였다.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의 칼날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스시스

카카오 자회사의 상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다음달 상장을 목표로 하는 카카오페이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다음달 14일을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달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에는 국내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광고라고 칭했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중개로 판단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핵심 서비스의 판매

를 중단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이후 상장 일정까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상생협력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불거진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논란을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늘린 계열사들에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의 리더십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김 의장은 동기부여를 위해 각 계열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스타일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모든 리더십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플랫폼 규제 '불똥' ... 3형제 주가 두 자릿수 '곤두박질'

9월 카카오 -18.66%·카뱅 -22.64%·게임즈 -13.07% 3사 시총 23조3986억 감소하며 국민주서 '미운 오리'

국민주 대접을 받던 카카오가 시가총액 5위로 밀려났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 등 다른 형제기업들의 주가도 플랫폼 규제의 불똥에 휩쓸려 무너졌다. 현재 화살은 카카오에 집중돼 있다. 과거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연상시키는 전방위적 사업 확장과 '심판'이 이어질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선수'까지 한다는 비난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3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91조4554억원을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3개사의 합산 시가총액 114조8540억원보다 23조3986억원 줄었다.

이달들어 카카오 3형제의 주가는 큰 폭으로 빠졌다. 카카오는 -18.66%, 카카오뱅크는 -22.64%, 카카오게임즈는 -13.07%의 낙폭을 보였다.

카카오 그룹은 지난달 6일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시총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 100조가 넘는 그룹으로는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카카오가 5번째였다.

카카오는 규제의 칼날에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이날도 -4.23%를 기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어발식 확장, 골목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핀테크 플랫폼 대상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

다. 7일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했다. 같은 날 금융당국도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10일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 통과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합세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2일부터 13일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날 주가는 6만4600원으로 상장 첫날인 지난달 6일 증가 6만9800원 대비 7.44%(5200원) 하락했고, 지난달 고점 9만4400원 대비로는 31.56% 떨어졌다.

꼬여 버린 수급이 문제다. 6일 상장 한달을 맞으면서 1개월간 의무보유 제한이 걸려 있던 기관 투자자 물량이 대

거 해제됐다. 1개월 보호예수로 묶여 있던 주식은 314만주로, 25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카카오펀크를 7614억 원이나 순매도했다. 이 기간 기관 순매도 1위다.

주가 고평가 논란에 시달린 만큼 공모매도 투자의 타깃이 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카카오뱅크는 9일 증가 기준으로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10일부터 공모매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2.44% 하락한 7만2000원에 마감됐다. 이동훈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게임주의 주가 급변동 요인은 국내 상위권 게임들의 순위 변화, 연내 출시를 앞둔 게임별 기대감 차별화, 중국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강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김예슬 수습기자 viajeportune@

〈박지원 국정원장〉

野 “국정원의 대선 개입” vs 차 “헛다리… 수사하면 나와”

여야 정면충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보도 날짜 상의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다시 한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열떨결에 한 소리, 말꼬리 잡기식 억지”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박지원 배후설 인정”이라며 박 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어 본격적인 여야 정쟁이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보기관 수장이 뉴스 정치면에 등장하는 상황을 불안해한다”며 “박 원장은 하루속히 조성은 씨와의 공모 의혹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대선 일정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뉴스버스 첫 보도가 나간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이나 제가 원했거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대표(국정원장)와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을 상의하

이준석 “해명 불충분엔 사퇴 요구”
윤석열 캠프, 박지원·조성은 고발
與 “사건 본질 흐리는 물타기”
대정부 질문서도 치열한 공방

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던(저로서는) 사고와 같은 보도였다. 말도 안 되는 억지다”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박지원 정치공작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 원장은 당장 국민에게 조 씨를 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대해서 상세히 밝혀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음습한 정치 개입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박 원장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전 총장 캠프 측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 원장, 조 전 위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당 측은 박 원장 배후설에 대해 오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려 ‘물타기’라 규정하며 다시 고발사주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의 박 원장 식사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시지를 공격하는 전형적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발사주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다. 조 전 위원장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면 윤 전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나고 개인적 만남이라며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박 원장도 배후설을 전면 부인

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건데 수사해 보면 나온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나.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배우로 만들려 하나.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박 원장의 배후설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정원법 의하면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못 하게 돼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사퇴(국정원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윤호 기자 uknow@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도 윤석열 ‘전방위 압박’

檢,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지조작 의혹 관련업체 조사
국민의힘, 김진욱 처장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다.

앞서 공수처는 10일 1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11시간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김진욱 처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여의도 의원회관 3층 김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나 오간 1차 압수수색과 달리 이날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일부 지도부 인사도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현장에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지조작 의혹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지조작에 자금을 대는 등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7월에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사 6곳에서 2010년 전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했다. 특정 증권사에서는 전화 주문 녹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씨 사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잡고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기업 협찬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운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0일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사업가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부동산업자 A 씨를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별개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는 당시 윤 전 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Maeil

칼슘이 부족하다면, 뼈건강 솔루션!

매일유업 골든밀크

단 2잔으로 하루권장량 칼슘, 비타민D, 아연 100% 충족

국내 유일 유당 0% 우유칼슘 100% 제품!
최대 함량 우유칼슘 800mg
세계 최초 독점공급

지금 검색창에 **골든밀크** 를 검색해 보세요!
www.goldenmilk.co.kr

상담원 친절 전화주문 | 080-850-0828

마사회 '창립 이래 첫 적자' 2000억대 대출 받는다

경마 중단한 지난해 4300억 손실 "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 강조

말 생산능가, 축산기금 출연 막혀 경륜·경정처럼 온라인 발매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한국 마사회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까지 받는 상황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해법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

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마사회는 창립 이후 72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13일 마사회에 따르면 2019년 약 7조3000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약 1조1000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영업손실은 약 4300억 원을 기록했다.

마사회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경마 경기의 중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경마가 중단됐고, 사실상 수입이 끊겼다. 올해도 주요 경마대회가 무산되는 등 중단 상황이 계속되면서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기로 마사회가 의결했다. 올해 적자 규모는 45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지금 긴축재정을 이어 가고 있지만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마 관계자들 급여 등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우려했다.

마사회의 적자로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불가능해지면서 말 생산능가도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경륜과 경정은 올해 5월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흥기복마사회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경마 산업은 물론 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빠졌고, 온라인 마권 발매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부는 경륜·경정 등 타 산업과의 비대칭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불법 사행 산업의 시장 주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은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행성

조장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국회에서 "코로나19로 마사회가 어려워져 탈출구로 온라인 마권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농식품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농업회의소 설치 법제화, 임업직불제 도입 등과 함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마사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째 증가 숙박·음식업은 16개월째 감소

고용부 8월 노동시장 동향 실업급여 지급액 줄었지만 7개월 연속 1조원대 기록

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지속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면서비스업종인 숙박·음식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고용 악화가 심화됐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만 7000명 늘었다. 전달(48만5000명)보다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5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세를 지속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코로나 4차 확산에도 수출 호조,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수출 증가 지속 등으로 지난달 8만6000명 늘면서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비대면 활동 확대, 정부 일자리 지원 등으로 전년보다 30만1000명 늘었다.

그러나 대면 서비스업종인 숙박·음식업 고용 악화는 더 확대됐다. 지난달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전년보다 1만9000명 줄면서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달(-1만5000명)보다 감소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운수업 역시 6000명 줄면서 고용 부진이 계속됐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 원으로 7개월 연속 1조 원대를 이어갔다. 전년 대비로는 지급액이 603억 원 줄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8만4000명)도 한 달 만에 다시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실적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가구당 1135원 올라

월평균 보험료 1만4446원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올해(11.52%) 대비 0.75%포인트 오른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79%에서 내년 0.86%로 소폭 늘어났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 요양급여 4.62%, 노인 요양시설(요양원)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인상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15만200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으로 약 97만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금액은 월평균 92만 원 이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면 된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해(1조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 국고지원금(1조8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박형덕(첫줄 오른쪽)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실천 행동강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서부발전

폐지 불가 비과세·감면 지출만 32조 '사상 최대'

2022년 조세지출 예산서 정부 "경제성장 따라 증가 당연"

내년 조세지출 중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이 3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제감면액은 올해 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로 분류된다.

내년에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구조적 지출이 12조 9000억 원으로 21.7%,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은 19조5000억 원으로 32.7%를 차지했다. 이를 더하면 32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한다.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

이 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 7000억 원 44.8%였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발생한다. 정부는 매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하지만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에는 34개 제도 중 7개(20.6%),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18.5%), 올해는 86개 중 7개(10.5%)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적 지출은 전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라며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서부발전, 중대재해 근절 D-100 캠페인

한국서부발전이 하반기 중대재해 사고 '제로(0)'에 도전한다. 서부발전은 13일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D-100 캠페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중대재해 사고가 하반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100일간을 산재 취약 시기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 전도, 협착 사고 등 3대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3대 고위험직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3·3·3 운동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산업재해, 이차사고를 예방하는 3·제로

(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서부발전은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중점관리항목을 만들어 사업소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사업소에는 포상을 수여해 안전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현장의 사소한 문제라도 철저히 확인해 바로 조치한다면 중대재해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며 "안전실천은 무엇보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니만큼, 일선 현장에서 좀 더 긴장감을 느끼고 재해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세상. 행복해지구

지구가 더 깨끗해지길
사회는 함께 더 따뜻해지길
기업은 신뢰와 공감을 통해 더 든든해지길

SK가 ESG로 만들어가는 길

지구도 사회도 기업도
+ 지속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수소 Value-Chain

꿈의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
생산-유통-공급망 생태계 조성



행복얼라이언스

결식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기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안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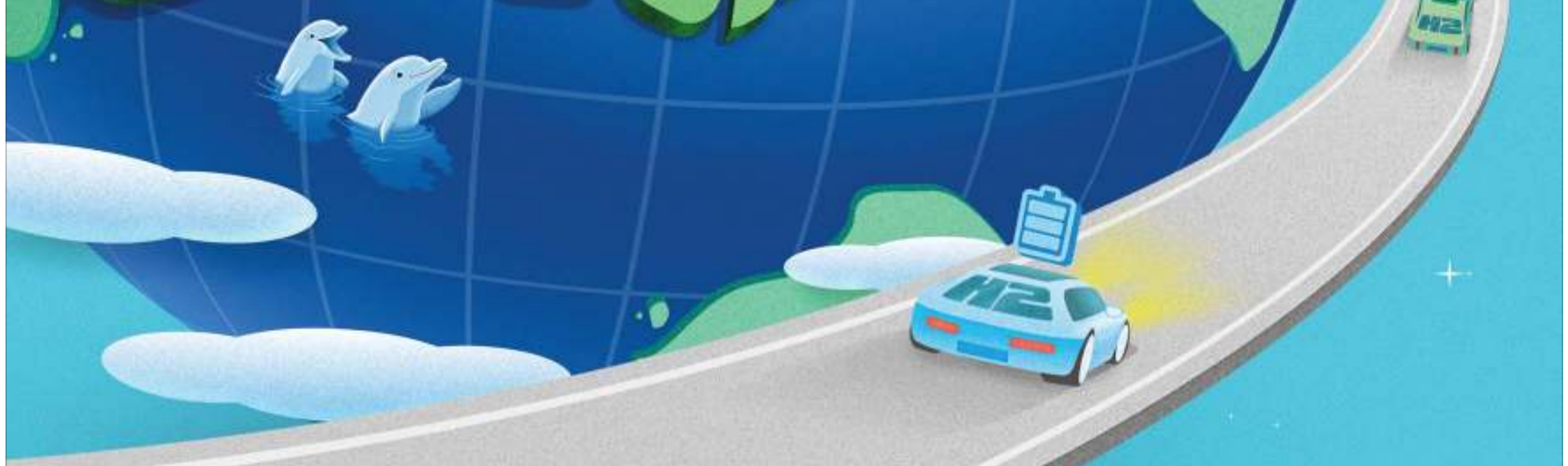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회에 도움 되는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

친환경 에너지 생산·사용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가 좋아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사용 확대

행복해지구





정세균 전 총리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캠프 소속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호남 경선 25~26일〉

고향 가기 전 하차한 정세균 '호남 승부수' 이낙연에 호재

민주 경선 시각변동 가능성

丁 "당·국가 위해 백의중군하겠다"

인위적 단일화보다 중도 사퇴

전남지사 출신 이낙연 결집 효과

1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직을 내려놨다. 25~26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수혜를 보는 건 이낙연 전 대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중군하겠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전북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전남지사를 지낸 이 전 대표와 함께 호남 경선에서 강점을 지닌 후보로 평가돼 왔다. 호남 출신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는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도 상정해 왔다. 이재명 캠프 조직본부장인 전북 전주갑 지역구 김운덕 의원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은 모 후보(정 전 총리)의 연고지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가 1위 후보임에도 이처럼 긴장을 늦출 수 없던 건 호남이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곳이라 경선 승부처로 꼽혀서다. 이재명 캠프에서 정 전 총리 사퇴 동향을 직접 살피기도 했다.

결국 호남 경선을 치르기 전에 정 전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 호남 표심이 기울 가능성이 생겼다. 사실상 단

일화 효과가 발생하면서다.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대표를 고려해 호남 경선 전에 사퇴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정 전 총리는 "제 결정은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인위적 단일화보다 중도 사퇴가 이 전 대표로의 결집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단일화했다면 호남+호남이라 확장성 문제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간 이낙연 캠프에서도 정 전 총리의 공개 지지 선언을 통한 흡수가 이상적이라는 바람을 공공연히 내비쳐 왔다. 지지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 전 총리 사퇴만으로 호남 경선에서 이 전 대표는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uknow@

호남 표심 구애 이재명 "丁 후보 제가 모시던 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의 경선을 앞두고 후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강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2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 출신 강경애에 전북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인해 지지세가 더욱 결집되면서다.

이 지사는 그간 지역 경선과 1차 슈퍼위크 국민선거운단 투표까지 모두 절반을 넘는 득표를 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1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경선에서도 반수 이상 득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의 경선이 25~26일로 다가와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세론을 부각시키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전략본부장인 전북 전주갑 지역구 민형배 의원은 "호남 경선에 특별한 대책을 묻는데 큰 흐름에 변화가 없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생한 변수가 정 전 총리의 전격 사퇴다. 이 전 대표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호남 경선을 앞두고 사퇴했기에 정 전 총리에 대한 호남 지지세가 전남 출신 이 전 대표로 향할 수 있다. 이에 이 지사도 같은 날 광주·전남 공약 발표 후 화상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후보는 2008~2010년 당 대표를 할 때 제가 당 상근대변인으로서 모시던 분으로 식구"라며 정 전 총리의 호남 지지세 이동에 신경 쓴 발언을 내놨다. 이 지사의 발언에서 묻어

나는 조바심처럼 캠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정 전 총리 사퇴에 광주·전남 공약이 묻힌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거듭 강조하며 호남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들을 향한 입장문을 내고 "경선은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 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2002년 호남이 위대했던 이유는 될 것 같은 이인제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 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의원직을 던져 가진 건 없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절실했"이라고 호소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父 투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본회의 의결

사퇴 선언 19일 만에 합의 처리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사진)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25일 사퇴 선언 기자회견을 한 지 19일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윤 의원의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직안은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의혹 대상자 발표 다음 날인 8월 25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치



권에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같은 당 인사들이 독려하고 민주당이 밀리는 모습이 펼쳐졌다. 민주당이 '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데에는 윤 의원 사퇴안을 통과시킬 경우 권익위가 부동산 의혹 대상자로 지목한 여당 의원들과 직접 비교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었다. 하지만 대선 경선, 고발사주 의혹 등 정국이 요동치자 민주당은 전날인 12일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 동안 가결은 안 됐을지라도 사퇴 선언했다가 유아무야된 사례는 더러 있다. 이번 윤희숙 의원 건은 민주당이 가결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담이 됨에도 가결된 건 정국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여야 경선 등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것이라고 과감한 계산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정은표 토마호크' 시험발사

1500km 한일 정밀타격 사정권
순항미사일로 안보리 위반 비켜가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군사 행동에 나섰다. 다만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수위를 조절하며 미국 등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비롯한 한미 군·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1월과 3월에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KN-27)의 개량형으로 보고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를 늘린 지대지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14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대부분 지

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시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기존의 ICBM이나 SLBM과 다른 새로운 핵전술 관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그렸다"는 북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비행 궤도와 경로를 바꾸면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반면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자제'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 준다. 원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무기인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이 떨어져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모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소집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북한 중앙통신은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경계)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외관은 미국의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와 유사하다. 연합뉴스

당정, 뉴딜 2.0 입법 완비 의지... "정기국회에 매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국판 뉴딜 2.0 입법 완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6차 회의에 참석해 "뉴딜 관련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핵심 과제"라며 "이미 입법 완료한 22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도 최대한 빠르게 심의를 완료하고 정기국회 내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과감히 증액하겠다. 야당의 근거 없고 무리한 삭감 공세는 원

내를 중심으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입법 과제도 애초 31개에서 43개로 확대됐다"며 "정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된 법안도 모두 처리돼 뉴딜 2.0의 법적 체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국비 투자 규모를 기존 114조1000억 원에서 160조로 대폭 증액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도 올해 21조보다 약 13조 증액한 33조7500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봉쇄 더하면 경제파탄... 동남아 '위드 코로나' 교육지책

말레이 등 경제성장 전망 줄하향
코로나 확산에도 경제개방 택해
지역봉쇄 대신 표적방역에 집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국 경제를 개방하고 있다. 여전히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씨름하고 있지만,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봉쇄 정책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억제와 경제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군납 식품 제공부터 노동자 격리, 소규모 록다운(봉쇄), 식당·사무실의 제한적 접근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백신 접종률이 낮아 델타 변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그룹(ANZ)의 크리스탈 탄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접종률을 기록했음에도 감염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접종률이 낮은 나머지 국가들에선 경제 재개방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냥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국가 재정을 흔들고 있고 통화정책 화력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선 반도체 회사 유니켄의 공장 직원 세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7일간 공장을 폐쇄했다. 공장 문을 닫기 전까지 올해 들어 약 3억6000만 달러(약 4232억 원) 매출을 올리던 유니켄은 이번

공장 폐쇄로 연간 생산량이 2%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공장 폐쇄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규모를 감축시키는 등 공급망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4%로 하향했다. 종전 전망치의 절반 수준이다.

필리핀에선 정부가 통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8일 계획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발소와 레스토랑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소매업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국은 마닐라와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이동 제한 조치로 일주일간 740억 페소(약 1조7397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신규 확진자를 억제하는 대신 증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싱가포르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따라가기로 했다. 특히 동남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당국은 이동 제한을 연장하는 대신 수년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준비 중이다.

표적 방역도 늘고 있다. 필리핀은 국가 또는 지역적 봉쇄 대신 이동 거리나 집 주변의 특정 장소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 역시 유사한 전략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소평물이나 예배 장소에 들어가기려면 백신 접종을 인증하는 카드를 지참하게 했고 싱가포르의 식당이 손님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도 문제는 있다. 블룸버그는 "이것이 더 광범위한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백신의 불평등한 분배로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란 '임시 핵사찰' 합의... 하마드 에슬라미(왼쪽) 이란 원자력청(AEOI) 청장과 라피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2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란은 5월 이후 중단됐던 IAEA의 임시 핵사찰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고, IAEA가 핵시설에 영상 녹화 장치를 설치·수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합의는 오스트리아에서 중단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이다. 라피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양측은 협력과 상호 신뢰를 재확인했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헤란/로이터연합뉴스

“일손부족에 공급차질” 英 ‘브렉시트 부메랑’

채소 수확 노동자·트럭 운전수 없어 식품 공급망 위기... “정부 충격완화 실패” 비판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후폭풍에 직면했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많은 국가에서 식량 부족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공급망 양대 핵심인 수확과 유통이 일손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수개월 동안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에서 채소를 수확하기 위해 오는 계절 근로자가 현재 품귀 상태인 데다가, 이를 운반할 트럭 운전사들도 씨가 말랐다. 한 농업협동조합은 신선식품을 냉동시설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트럭 운전 인력 부족으로 지난 한 주 동안 100만 파운드(약 16억 원)로 추산되는 식품을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정도다.

CNN방송은 “브렉시트의 결과가 마침

내 영국을 들쭉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부가 약속한 ‘최상의 상황(Sunlit Uplands)’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 노동자의 부족은 기업의 재정적 손실과 크리스마스 시즌의 빈 선반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트럭 운전사의 부족이다. 영국 화물 운송 협회 로지스틱스UK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9만~12만 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브렉시트가 이 문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국이 더는 유럽 운전자들을 쉽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식품산업에 있어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영국인 근로자로 이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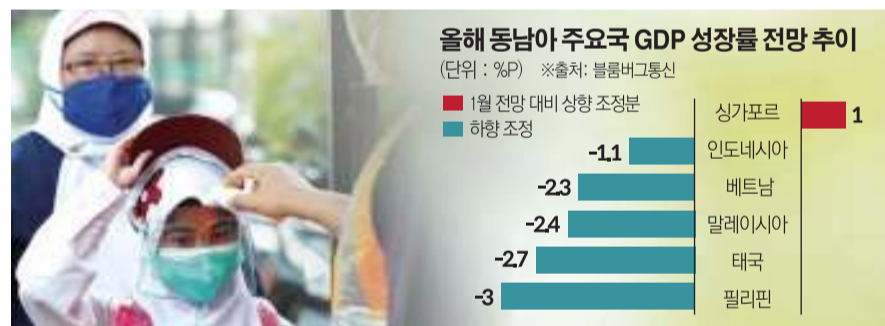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운전 자격을 갖추는데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비용 또한 5000 파운드가 들어간다. 또 영국인들은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로지스틱스UK 관계자는 “영국 노동력은 고령화됐으며, 많은 젊은이는 안전하지 않은 주차 공간과 쉴 수 있는 장소의 부족 등 열악한 근무 조건에 트럭 운전기사가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들은 식량 부족 사태를 ‘전례 없는 일’로 묘사했다. 한 관계자는 현지 일간 더타임스에 “지금껏 봤던 어느 때보다도 나쁜 수준”이라며 “크리스마스에는 운전자 부족으로 선반이 텅 비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존슨 총리를 더 큰 정치적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미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의 불가피한 결과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으며, 초기 충격을 완화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지난 7월 이후 거의 멈춰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中정부 “대출업 분리” 알리페이 쟁전다

화베이·제베이 분할 지시... 사실상 국영기업이 대출 통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홀딩 산하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핵심 사업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쟁전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자랑하는 ‘슈퍼앱’ 알리페이를 분할, 소비자 대출사업을 별도 앱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알리페이가 더는 소비자 대출사업을 하지 말고 주력인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현재 알리페이는 신용카드와 유사한 ‘화베이’와 무담보 소액대출인 ‘제베이’가 있는데 두 부문이 알리페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6월 앤트그룹이 국영기업과 손잡고 세운 새로운 신용평가회사인 충칭엔트컨슈머파이낸스(이하 충칭엔트)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새 합작사는 저장성여유(관광)투자집단 등 앤트 본사가 있는 저장성 국영기업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중국 국영기업들이 앤트그룹의 새로운 신용조사 합작 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관계자를 인용, 새 신용조사 합작회사의 출자 비율에 대해 앤트와 저장성여유투자집단이 각각 35%, 항저우금융투자 집단과 저장전자자 각각 5% 이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알리페이는 사용자 데이터를 새 합작사로 옮겨야 한다. 이는 알리페이가 고객 신용평가를 충칭엔트 측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향후 알리페이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충칭엔트가 신용평가를 하게 되고 이후 화베이와 제베이 대출 앱이 이를 최종 처리하는 형식이다.

중국의 금융 규제·감독 당국과 가까운 관계자 중 한 명은 “중국 정부는 대기업의 독점력 원천이 데이터 지배에 있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끝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앤트그룹 이외 인터넷 금융업체들도 새로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앤트그룹은 새로운 규칙에 영향을 받는 유일한 온라인 대출 업체가 아닐 것”이라며 “올여름 인민은행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대출 결정은 독점적 데이터보다는 승인된 신용평가사의 데이터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집값버블” 중국판 ‘리먼 사태’ 경고음

4대 은행 부실채권 잔액 188조 달해... 中정부 대출 옥죄기 나서

중국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산 버블 붕괴를 우려한 당국이 과잉 부채 기업 단속에 고삐를 죄 영향이다. 기업 부도가 금융기관 파산을 낳고 이어 경제 전반을 흔드는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주요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시중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은 부실채권 비율이 6월 말 4.29%로 전년 동기 1.41%에서 급등했다. 공상은행을 포함해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 4대 은행의 총 부실채권 잔액은 6월 말 기준 1조325억 위안(약 188조2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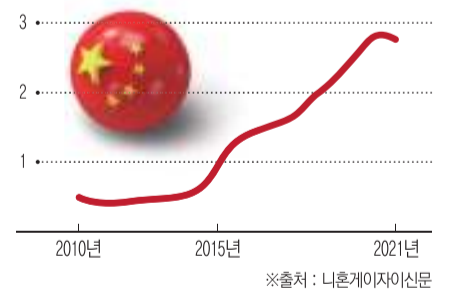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이 더딘 지역의 상황은 더 안 좋다. 공상은행의 라오닝성과 길림성 등 동북부 지역 부실채권 비율은 3.9%로 광둥성 등 주장 삼각주(0.96%)보다 세 배 이상 높고 작년 말의 3.38%보다도 올랐다.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지방 기업 대출이

많은 중소 금융기관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6월 말 기준 홍콩 상장 중국 본토 은행 가운데 40%가 부실채권 비율이 작년보다 늘었다. 라오닝성 진저우시를 거점으로 하는 진저우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반년 만에 22%나 급증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부동산(7.7%), 개인 대출(27%)이 높았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 증가 배경으로 당국의 부동산 투기 단속에 따른 규제 강화가 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 부유’를 기치로 자산 격차 해소 칼을 빼 들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는 그 일환이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부동산 업체들의 대출 총량도 줄였다. 은행 문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면서 은행 대출 이자 지급 중단 선언 소식이 나온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은 6월 30일 기준 부채 규모가 1조9700억 위안(약 353조5000억 원)에 달한다. 헝다의 거래 및 기타 미지급금은 6월 말 현재 사상 최고치인 9510억 위안(약 171조 원)으로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 추이 (단위: 조 위안)



작년 12월 대비 15% 증가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캐런 찬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 단속 여파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 전체 부실채권 비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헝다 신용등급을 ‘CC+’에서 ‘CC’로 강등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유동성과 신용등급 조정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닛케이에 일본 경제 장기집재도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파산한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중국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김서영 기자 jyoung2@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당국이 적극 나서야”

이동걸 산은 회장 취임 4주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조선·항공산업 등에 대한 결함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당국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조선과 항공산업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재편 과정인데, 우리 정책당국이 뒷집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노조와 지역사회의 무조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결합심사, 전향적 태도 취해달라 = 이 회장은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항공사 간 합의는 끝났지만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쟁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자, 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장은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은 글로벌적으로 우리 항공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

韓 항공산업 생사가 걸린 문제 타 경쟁당국 설득에 앞장서야

산업재편 무조건 반대하면 ‘독’ 노조·지역사회의 도움 필수적

제”라면서 “우리 경쟁당국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다른 경쟁당국도 설득하는 등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아마존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고 할때 미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한다”면서 “우리 당국은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공개적으로 읍소하겠다. 조속한 승인절차 밟아 달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재편이라는 큰 시각에서 봐주고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달라는 요구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국내 노조와 지역사회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EU경쟁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3일 취임 4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노조와 지역사회가 EU 경쟁당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점이 오히려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업 재편의 문제를 국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며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이 안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때 가서 산은에 다시 책임을 물을 것이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은 불가능한 만큼 노조와 지역사회가 도와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이 독자생존이 가능하냐”며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지원 없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 방법을 말한다면 직접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HMM, 다년 임단협 자리잡아야 = 이 회장은 최근 HMM(옛 현대상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일진보했다”고 평가했다. 임단협을 매년 경신하는 노사문화로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만큼 HMM처럼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전제로 3년 이상의 다년 임단협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한해서는 호봉제 폐지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봉제 영향으로 대부분 직원이 퇴직 기간은 오래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고임금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보다는 나는 높은 임금을

받고 퇴직하겠다’고 하는 풍토도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구조조정 기업이라도 호봉제는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HMM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 “지분 매각은 정부 정책판단과 시장 여건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산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중심으로 경영권 지분을 유지하고, 산은 보유주식은 점진적 매각을 통해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오는 15일 이퇴지는 쌍용차 매각 본입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쌍용차 매각 본입찰에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경영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투자자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인수 후보자들이 공장 부지 개발 이익 등 ‘갯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부실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과정에서 먹튀 얘기가 나오는 데, 먹튀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내부통제 발전안 발표한 금융협 ‘제재보다 개선방향 제시해달라’

고 위원장 ‘책임 가혹’ 과거 언급 업계, 실현 가능성 두고 촉각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오는 16일 6개 금융협회장을 만나는 가운데, 최근 협회가 발표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언급할지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협회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7조 원 규모의 피해금을 냈으면서도 내부통제는 회사 자율에 맡기라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만난다. 이날 만남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에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6일 협회가 자발적으로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 제안한 만큼, 협회의 내부통제 발전안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안은 금융사의 이사회가 중심이 돼 문제의 임직원을 징계하거나 부실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불완전판매로 수많은 소비자를 울려 놓고도 ‘당국의 감독을 더 성실히 받겠다’가 아닌 금융사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겠다고 했다. 또 내부통제 관련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금융당국에 현행의 제재 중심 감독이 아닌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율 규제를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사회는 사실상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사람들

로 채우기 때문에, 회장의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이사회가 손 행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안이 나온 배경은) 최고경영자 일명 구하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협회 안이) 모양새만 갖추고 성과는 안 나는 눈 가리고 아웅의 방식은 안 된다”며 “금융사가 스스로 자정활동을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금융위 사무처장에 재임하던 고 위원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 금융사는 가혹한 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 안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에 대해 “현재는 안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짧게 답했다. 문수빈 기자 bean@



10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겸 아시아신협연합회장이 제40차 아시아신협연합회 정기총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협중앙회

신협, 아시아 21개국과 비대면 정기총회

신협중앙회가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2021년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ACCU는 매년 1회 아시아 및 전 세계 신협에서 참가하는 아시아신협포럼을 개최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별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규모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ACCU 화상회의는 △ACCU CEO 워크숍 △제106차 ACCU 이사회 △제40차 ACCU 정기총회로 진행됐으며, 21개국 50여 명의 아시아신협 지도자가 화상회의에 참여

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총 23개국, 4800만 명의 아시아 신협인을 대표하는 아시아신협연합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개막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타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협동조합 정신을 기반으로 한 신협의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아시아 신협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최근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혁신과 역동성을 갖춘 신협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20兆 뉴딜펀드’ 운용하는데... ‘낙하산 인사’ 추천한 성장금융 대표

공채 없이 전 靑 행정관 내정 금융 관련 경력·자격증도 없어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책임자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가 이번 인사의 추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산업은행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성장금융 임원 선출과정’에 따르면 황현선 전 행정관의 임원 추천자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은 △대표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추천 △

결격사유 등을 검증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투자운용2본부장)임에도 공채가 아닌 대표이사가 추천해서 선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투자운용2본부는 마치 황현선 전 행정관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뉴딜펀드 운용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성장금융이 맡아서 진행해 왔는데 굳이 8월에 본부를 쪼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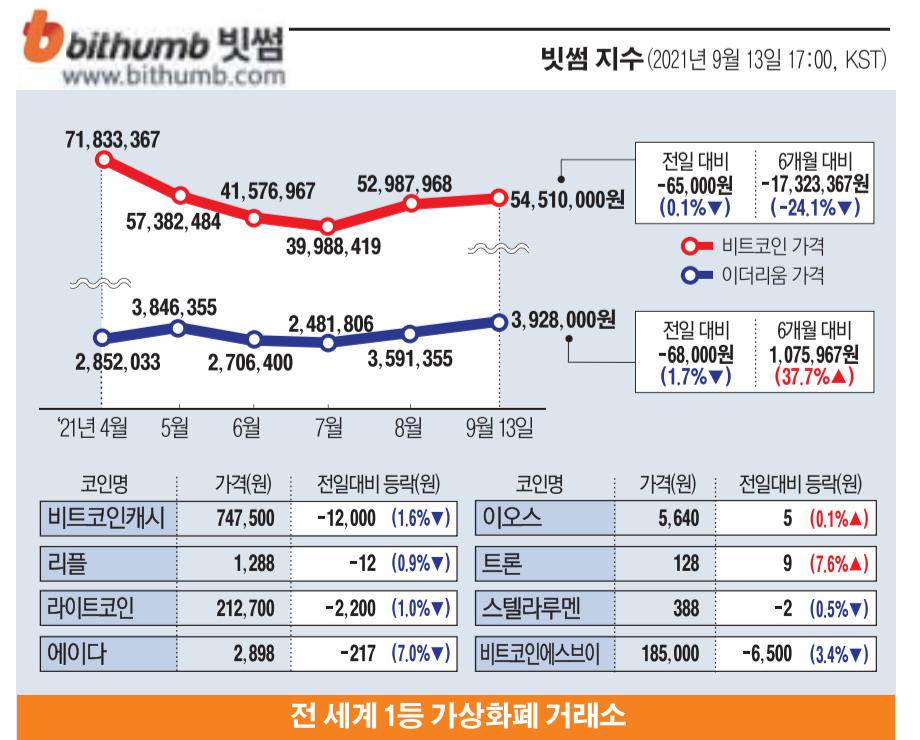
다만, 한국성장금융은 황 전 행정관 임원 선임 시, 보직 결정 여부에 대해 “비결정”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출자해 만든 회사다.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우, 최고운영책임자(CIO)를 뽑을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확인 결과, 현재 KIC 투자운용부문 CIO는 오랜 투자운용 경력에 ‘운용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한국성장금융은 투자운용1본부장을 제외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역시 금융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무경력, 무자격증 여당 당직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국민의 눈 같은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36년 만에 최저

업계, 선제 투자로 가공능력 확보
남미 저품질 원유로 효율성 높여

텍사스산보다 가격 경쟁력 저하
친환경 기반 유럽산 비중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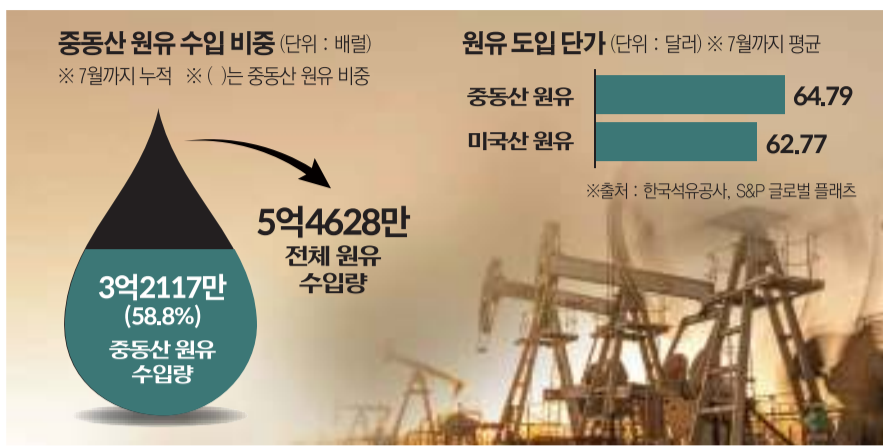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비중이 3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석유제품의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값비싼 원유를 대체해 남미, 유럽 등에서 수입을 늘린 영향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와 원자재 시장 조사업체 S&P 글로벌 플래츠 등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수입한 원유량은 3억2117만 배럴이었다.

전체 원유 수입량이 5억4628만 배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동산이 전체의 58.8%를 차지한 셈이다.

이는 1985년 중동산 원유 비중이 57%였던 이후 약 3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정유 시장에서 중동산 원유는 높은 비중을 이어왔다. 특히, 2016년 전후로는 전체 수입량의 80%대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던 것이 최근 남미, 유럽 등 제3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늘면서 중동산 원유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우선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에서의 원유 수입이 늘었다. 남미산 원유는 저품질 제품이라 가공이나 활용 범위에 한계가 있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가공 능력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맞춰 유행 비중을 대폭 낮춘 '저유황선박유'가 대표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남미에서 들어오는 저품질 원유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보통 중유를 만드는데 다른 제품들보다 수익성이 낮았다"며 "국내 정유사들은 선제 투자로 저유황 선박유 등 고가의 청정연료를 만드는 식으로 저품질 원유의 효율성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산 원유의 경우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럽이 환경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석유 기업이 하나둘 생기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GS칼텍스는 최근 세계 최

초로 탄소 중립 원유 인증을 획득한 스페인 에너지기업 룬딘의 노르웨이 요한 스베드립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탄소 중립 원유 200만 배럴을 구매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석유개발사인 룬딘은 시험·인증기관 인터텍의 '카본클리어(CarbonClear)'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탄소 포획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감축 국제인증기준 'VCS' 인증도 받았다.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정유사들이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원유는 68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250만 배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이나 다른 지역들보다 중동산 원유가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도 국내 정유사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 중 하나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까지 중동산 원유의 도입 단가는 배럴당 64.79달러로 미국산 원유가격 62.77달러보다 높았다.

한편 석유협회 관계자는 "중동산 원유, 두바이유가 텍사스산원유(WTI)보다 다시 저렴해지면 중동산 원유로 트렌드가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이구영(오른쪽) 한화큐셀 대표이사과 황우현 제주 에너지공사 사장이 협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화큐셀-제주에너지공 분산에너지 활성화 '맞손'

한화큐셀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제주도 분산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이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수급시스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MOU는 제주도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술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및 전력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수소의 생산·소비 시스템을 발굴 및 구축하고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서명했다.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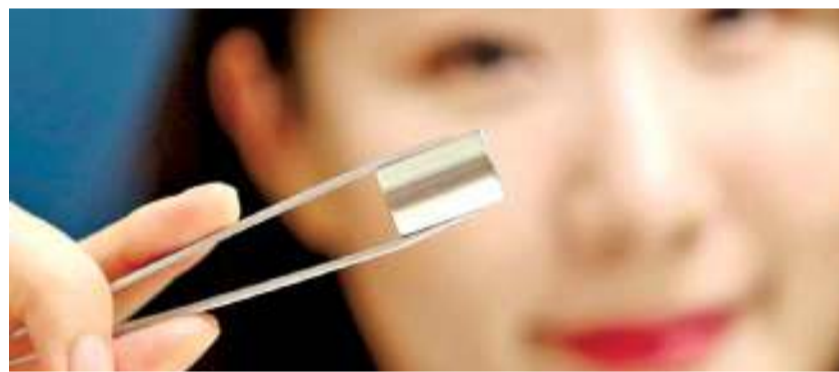
LG이노텍, 세계 최고 '친환경 자석' 개발... 中·日에 도전장

중희토류 사용량 60% 줄여
스마트폰·차량 경량화 시너지

LG이노텍이 마그넷 전문 기업 성립 첨단산업과 공동으로 희토류 사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력을 가진 '친환경 마그넷(magnet)'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 마그넷'은 희소 가치가 높은 중(重)희토류 사용을 최소화한 자석이다. 차량 모터, 스마트폰용 카메라, 오디오 스피커, 풍력 발전기 등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다. 구동이 필요한 제품에 장착돼 자석의 밀고 당기는 힘으로 동력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자석의 핵심성분인 중희토류 사용량을 기존 대비 60%가량 크게 줄였다. 중희토류의 공급 부족, 높은 가격, 환경오염 문제로 대안 찾기에 고심하던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나라



LG이노텍 직원이 '친환경 마그넷'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중희토류를 최소화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력을 확보했다. 사진제공 LG이노텍

는 중희토류 대부분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희토류는 생산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중금속, 독성가스, 산성폐수 등을 대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희토류 사용을 최소화한 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친환경 마그넷'을 차량용 조향 모터

에 적용하면 모터의 출력은 높이면서도 크기가 줄어 경량화에 유리하다. 배터리 무게 증가로 전비(전기차의 연비) 향상을 위한 경량화가 시급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적합하다. 이 제품을 고화소 스마트폰용 카메라에 장착하면 액추에이터(조점을 맞추기 위해 렌즈를 움직이는 부품) 구동력을 높여 깨끗하고 선명한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 촬영

할 수 있다.

그동안 마그넷 분야에선 일본과 중국이 시장을 주도해왔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중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하는 추세다.

LG이노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중희토류를 줄인 '친환경 마그넷' 개발에 본격 돌입했고, 2019년부터는 업계 최고 성능 확보에 주력해 왔다.

LG이노텍은 차량용 조향 모터,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등 자사 제품에 '친환경 마그넷'을 적용해 차별화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 및 차량 부품 기업, 스마트폰 제조 기업 대상의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적용 분야도 에어컨, 냉장고, 드론, 도심형 플라잉카, 발전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한다.

LG이노텍은 희토류를 아예 넣지 않은 '무희토류 마그넷'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현대중 건설기계 3개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부문 3개사(현대제뉴인·현대건설기계·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통합 채용에 나선다.

13일 현대제뉴인 등 3개사는 현대중공업그룹 인재채용 사이트를 통해 2021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서류 접수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번 채용은 현대제뉴인의 경우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회사로 지난달 출범한 이후 첫 신입사원 선발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사명을 바꾼 이후 첫 번째 신입사원 채용이다.

모집분야는 △영업 △연구 △설계 △생산관리 △경영지원 등 전 직무영역이다. 입사지원자는 3개 회사 가운데 지원 회사와 희망직무, 희망근무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하만, 사운드바·무선 헤드폰 신제품 6종 출격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인터내셔널이 신제품 사운드바 1종, 무선 헤드폰 5종을 출시(사진)했다고 13일 밝혔다.

JBL 바 5.1 서라운드(BAR 5.1 SURROUND)는 2개의 서라운드 스피커, 힘 있는 저음 무선 서브 우퍼로 구성된 생생한 음향을 제공한다. '자동 멀티빔 캘리브레이션(AMC)' 기술도 적용됐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와 음향 환경을 분석해 왜곡 없는 음향 구현이 가능하다. 최대 550W(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콘서트에 걸맞은 다양한 효과음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HDMI 및 옵티컬을 통한 TV와의 유선 연결뿐 아니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구글 크롬캐스트, 에어플레이2(AirPlay2), 알렉사 MRM 기능 등을 탑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콘텐츠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이달 1일 정식출시된 이 제품



의 출고가는 79만9000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JBL의 무선 헤드폰 5종은 △무선 오버이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JBL TOUR ONE △무선 오버이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JBL LIVE 660NC △무선 오버이어 헤드폰 JBL TUNE 710BT △무선 온이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JBL TUNE 660NC △무선 온이어 헤드폰 JBL TUNE 510BT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광주형일자리' GGM, 내일 첫 양산車 출고

공장 착공 1년 9개월 만에 결실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 생산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첫 양산차를 오는 15일 출고한다. 광주형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조립공장을 착공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선행(시험)생산을 추진해온 GGM이 15일부터 양산 체제로 전환한다. 양산 1호차는 현대차의 경형 SUV 캐스퍼다.

GGM 관계자는 "올해 초 채용한 기술직 신입사원들의 숙련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양산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며 "7월 말부터 D-50 체제 속에서 선행(생산)을 시작했고, 품질도 자신한다. 차질없이 양산 1호차를 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양산차인 캐스퍼는 현대차가 아토스 이후 20년 만에 출시하는 경차다. 배기량(1000cc 미만)과 차 크기(길이 3600mm)는 경차 기준을 딱 채웠다. 그러나 SUV 콘셉트를 앞세워 이제껏 본적이 없는, 국내 최초의 경형 SUV다.

GGM은 지난 4월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도장과 조립공장이 차례로 준공되며 시험생산을 시작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조립품질과 완성도 등을 끌어올리는 한편, 마무리 양산 준비도 진행해 왔다.

GGM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최종 양산 시점을 정해놓고 D-50일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시험생산과정에서 문제를 짚어내고 개선에 개선을 반복했다"라며 "이런 과정에서 무결점 자동차 생산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고, 우리 스스로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GS칼텍스 '에너지플러스 EV' 앱 '전기차 충전·결제 한 번에 해결'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EV' 앱을 출시하고, 고객들에게 △전기차 관련 충전 △충전기 정보 검색 △앱 고객 대상 충전비 할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바로 충전' 서비스는 고객이 충전 패턴과 결제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충전기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 충전 주문과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의 모든 GS칼텍스 전기차 충전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충전 패턴은 충전율, 충전량, 시간, 금액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충전 중에 원거리에서도 앱을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 중지 등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

<15초~1분 분량 동영상 콘텐츠>

틱톡·인스타·유튜브 달구는 '숏폼' 전쟁

짧은 동영상 콘텐츠 Z세대 호응
틱톡 이용자 연초 대비 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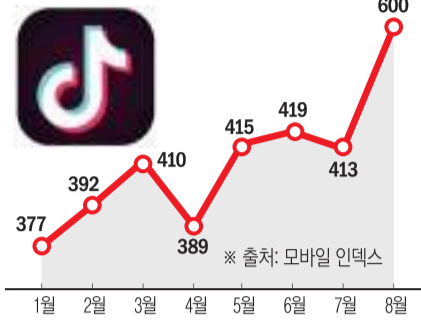
유튜브·인스타 등 서비스 가세
카카오TV 20분 분량 예능 제공

소셜 숏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등 숏폼 콘텐츠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숏폼 콘텐츠와 플랫폼 앱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숏폼 콘텐츠는 15초~1분 사이의 짧은(숏) 시간 동안 지속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주로 동영상 콘텐츠로 이뤄져 있는 점이 특징이며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 짧은 시간 동안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

◇Z세대는 틱톡 열풍=현재 서비스 중인 숏폼 콘텐츠 플랫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이트댄스의 '틱톡'이다. 2016년 틱톡은 전 세계 150개 국가와 지역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후 지속해서 영향력을 확장하며 숏폼 플랫폼

국내 틱톡 앱 월간 순이용자 추이
(단위: 만 명, 2021년 기준)



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이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대형 SNS 플랫폼이 속속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숏폼 영상 콘텐츠 전쟁에 뛰어들었다.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현재 베타 서비스인 '쇼츠(YouTube Shorts)'를 제공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인수된 인스타그램 역시 '릴스(Reels)' 서비스를 통해 숏폼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틱톡이 국내에 정식으로 진출한 것은 2017년 11월이다. 틱톡은 국내에서도 Z세대(1995~2010년 출생)를 중심으로 대

적인 SNS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짧은 영상 시간과 다양한 영상 편집 효과를 활용해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가 자기 기량을 펼칠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 틱톡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아이지아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기준 틱톡 앱 월간 순이용자수(MAU)는 600만669명으로 올해 1월(377만9248명) 대비 58.78%(222만1421명) 급증했다. 3월부터 400만 명대를 유지해온 데 이어 최근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에 힘입어 틱톡은 최근 국내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예고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서 전 영역에 주목받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가수 송민호가 출연한 캠페인 영상도 공개했다. 틱톡은 '그냥 너답게 즐기거야'를 슬로건 삼아 본격적으로 브랜드 마케팅도 전개한다.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도 속속 숏폼 콘텐츠 제공에 나섰다. 최대 20분 길이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업이 등장하면서다. 카카오의 온라인 동영상 서

비스(OTT) 카카오TV는 기존 TV 프로그램보다 현저히 짧은 길이의 숏폼 예능부터 미드폼(Mid-Form) 예능까지, 짧은 호흡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종료·베끼기 '엠티락뒤치락'=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은 2010년부터 지속해서 숏폼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소셜 앱의 경우 콘텐츠를 영상 뿐만 아니라 텍스트, 사진까지 확장하되 공개 시간을 짧게 하는 SNS 서비스에 집중해왔다.

사진과 영상 메시지를 최대 10초까지 공개할 수 있는 '스냅챗'이 대표적이다. 스냅챗은 2011년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인스타그램이 비슷한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출시하며 쇠락했다. 트위터 역시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트위터 플릿(Fleet)'을 지난해 말 출시했지만, 올해 초 서비스를 종료하며 시합 기간을 마쳤다.

틱톡과 비슷한 숏폼 영상 서비스를 공략했던 기업도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바인(Vine)'이다. 2013년 트위터가 론칭한 바인은 4~10초간의 짧은 영상을 찍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

록 했다. 비디오 밈(Meme·유행)의 시초격인 바인은 숏폼 동영상 콘텐츠의 시초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확대한 이후 인플루언서를 기반 삼아 영향력 확대에 나선 유튜브와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에 밀려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하며 쇠락을 겪었고 2016년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페이스북 역시 2018년 자체적으로 숏폼 영상 플랫폼인 '라소(Lasso)'를 출시한 바 있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IT 업계에서는 숏폼 콘텐츠 선점 경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SNS 시장에서 플랫폼 혁신 과정과 새로운 세대의 수요자가 등장한 점이 맞물려 숏폼 콘텐츠가 부흥할 수 있었던 분석이다.

한 SNS 업계 관계자는 "Z세대 등 새로운 세대가 모바일 환경에 등장하면서 기성세대와 다른 새로운 소통 창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며 "숏폼 콘텐츠 시장의 강세는 앞으로도 짝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대원 기자 leedw@



서성용(왼쪽부터) SK텔레콤 매니저, 정창권 인프라 비즈 부부장, 신용식 IoT CO장과 전혜수 한수원 디지털혁신추진단 단장, 배봉원 양양 양수발전소 소장, 김성술 정보통신실 실장, 채종일 정보통신실 부장이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발전소 유선통신 장애 발생 시 초 단위로 대응하기 위한 '프라이빗(Private)-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 실증 후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업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발전소 유선망 장애, 5G 기술로 '초' 단위 복구

SKT·한수원 '프라이빗 5G 비상통신' 성공...타 발전소 확대 전망

SK텔레콤(SK)이 5G 기술로 발전소 유선망 장애 시 초(秒) 단위로 복구하는 솔루션 개발·실증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라이빗(Private)-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 도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솔루션은 현장과 발전소 통제실을 잇는 유선통신장비에 장애가 생길 경우, 자동으로 '프라이빗-5G' 기반 무선통신으로 비상 전환해 몇 초 내로 장애를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유선통신 관련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리자가 장애 현장으로 출동해 수리 및 복구를 진행해야 해 정상화까지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중기부, 외상거래 지킴이 '매출채권보험' 200조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이 2004년 도입 이후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뜻한다. 매출

SKT와 한수원은 '프라이빗-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상부 댐과 하부 통제실을 무선통신으로 잇는 현장 실증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솔루션 도입으로 국내 발전소 IC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전기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솔루션의 상품화와 국내 수력양수 및 원자력 발전소들에 이를 적용하는 사업 확대 추진에도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KT와 한수원은 2019년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양사의 보유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SKT의 '프라이빗-5G' 상용화 이후 높은 보안성을 갖춘 무선망을 활용해 발전소 현장에서 실시간 모바일 상황공유시스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한 수력 지형 통합관리 시스템 등 모바일 기반의 수행 가능 업무를 개발해 왔으며, 동시에 현장에서의 사용성 확대를 위해 무선망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SKT 신용식 IoT Co장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으로 5G를 통해 안정적인 전기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ESG 경영의 모범사례가 될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수원과 '프라이빗-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하고,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래처의 부모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 원을 기록한 후 2016년 100조 원, 올해 8월 말 200조 원을 돌파했다. 연간 인수금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KT, 송파빌딩서 '디지코' 가속도

AI·로봇 등 업무효율성 높여

KT송파빌딩(사진)으로 출근하는 AI 과장 주변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들이 있다. AI 방역 로봇의 자율주행 공기살균부터 시작해 바리스타 로봇의 아메리카노, 우편로봇의 배송물 등 로봇이 업무 생활을 돕는다.

KT는 이처럼 AI·로봇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 기술로 완성된 'KT송파빌딩'이 주요 사업 거점으로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KT송파빌딩은 에너지·실내공기·보안·안전과 같은 빌딩관리부터 사원증·우편배송·좌석예약·헬스케어 등 업무 및 복지 전 영역에 KT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기술을 집약시킨 미래형 AI 타워다.

엔터프라이즈부문 및 AI/DX융합사업 부문이 KT송파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KT송파빌딩은 오피스동과 호텔동으로 나뉜다. 총 지하5층 지상 32층 규모로 KT는 4층부터 16층까지 13개 층을 사옥으로 사용한다. 호텔동은 지하 5층부터 지상 32층 규모다.

KT는 오피스동과 호텔동을 포함한 송



파빌딩 전체에 약 2000개의 사물인터넷(IoT) 설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에너지 설비를 자동제어해주는 AI 빌딩 오퍼레이터를 도입했다.

KT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무인 우편 배송 시스템을 운영한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좌석제를 도입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KT 구현도 대표는 "KT송파빌딩 출범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 가속화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B2B 및 AI/DX 사업 성과로 기업가치를 지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스마트공장 한눈에" 중기부 표준지도 제작

5대 공정·6대 기술 분류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표준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은 99% 이상이 여러 국제기관·단체에서 제정해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직접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에 관한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 2011종의 스마트공장 표준을 5대 공정영역과 6대 기술 분야별로 분류한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14일부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5대 공정영역

전체를 1장으로 보여주는 종합지도와 공정영역별 세부지도 5매를 포함해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각 공정영역에 대해 6대 기술 분야로 구분하고 시장활용도, 확장성, 최신기술 등을 고려한 중요도를 함께 표시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표준을 쉽게 활용하고, 표준을 이용한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스마트공장은 이기종 설비·시스템 또는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표준확산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공장 표준지도가 국내 기업들의 표준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생크림 대란’에 속 타는 카페·베이커리

경기도 부천에서 개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최근 생크림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지난 여름부터 대형마트, 온라인 마트, 베이킹몰 쪽을 전부 뒤져봐도 입고 즉시 품절이다”라면서 “당장 생크림이 필요한데 공급자 측에서는 수급이 어렵다고 해서 경기도 용인에서 영업하는 지인한테 생크림을 얻었다”라고 토로했다

동네 빵집, 커피전문점 업체 등을 중심으로 생크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폭염 여파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사람들이 우유 대신 크림을 먹는 등 우유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원유값 인상으로 유가공품 가격 절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생산비용 압박이 늘면서 생크림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마켓컬리 등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사 내 생크림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마트 측은 시중에서 생크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물량확보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켓컬리 등 온라인 장보기 앱에서도 생크림 품목은 현재 품절 표시가 뜨며 구입 불가능한 상태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5월쯤부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유가가 대부분 일반 생우유로 생산되고 있고, 생크림 제조용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물량은 현재 확보 중이며 다음 달 초쯤 되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유값 인상, 품귀 부채질 치즈·크림 등 인기도 한몫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필요

일반적으로 생크림 품귀현상은 일종의 연례행사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름 폭염이 지속되면서 젖소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착유량이 감소하는 탓이다. 그 여파는 원유 부족으로 인한 생크림 품귀 현상으로 나타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한 약 104만 톤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따



지면 올 한 해 전체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2.4~2.6% 감소한 203만 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고온 영향으로 살균유, 멸균유 등 전반적으로 원유가 부족했다. 생크림은 원유 유지방을 분리해서 만든 것이니 만큼 원유가 부족하면 생크림이 부족해진다”라면서 “지난달 말부터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원유 가격이 1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인상했다. 생크림을 생산하는 원가부담 압박이 더 커지는 셈이다.

소비 습관이 바뀐 점도 생크림 품귀현상에 한몫한다. 소비자들이 우유 대신 치즈, 크림 등 유가공 제품을 즐겨 먹으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유 소비량은 2015년 이후 165~170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전년 대비 3.3% 감소한 약 164만 톤을 기록한 반면 유제품 중 크림 소비량은 연평균 6.3%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4만 3000톤이었던 국내 크림 소비량은 지난해 5만9000톤을 기록하며 37% 가까이 늘었다.

유업계 한 전문가는 “근본 대책은 원유 가격연동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원유 가격연동제가 지속되는 한 비용 압박으로 해마다 이 같은 품귀현상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추석 귀성 대신 고가 선물” 20년 만에 앞줄로 나온 위스키

롯데마트 주류 예약 190% ↑ 홈플러스 위스키 전진 배치 신세계, 전통주 등 종류 늘려

추석 선물로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추석 연휴 기간에 온 가족이 다 모이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선물만 전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선물 가격대가 높아지면서다. 실제 대형마트에서는 최근 위스키가 추석 선물세트의 매대 맨 앞줄에 등장했는데 위스키가 주류 메인 선물세트에 나온 것은 1990년대 이후 약 20년 만이다. 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주류 선물세

트 추석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기간인 22일까지 위스키, 보드카, 전통주, 와인 등 다양한 주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PRK 발렌타인 21년’ (15만5000원), ‘로얄샬루트 21년 Snow Polo’ (25만9000원) 등이다. <사진>

김홍석 홈플러스 차주류팀장은 “코로나19로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보다 한 잔을 음미하려는 문화가 퍼지면서 위스키를 주류 선물세트 맨 앞줄에 내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에서도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양주세트가 전년 동기 대비 38% 가량



신장했다. 이에 이마트는 올해 추석에 발렌타인 싱글몰트 12-15년산 3종, 탈리스크 10년, 싱글톤, 발베니 26년, 집뽀뽀 버번, 와일드 터키 버번 8년 등을 비롯해 약 200여종의 양주를 판매한다.

롯데마트도 7월 29일-8월 31일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기간 동안 ‘주류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190.6% 증가했다. 그 중 ‘위스키 선물세트’는 157.6%, ‘와인 선물세트’는 210.6% 신장하며 전체 주류 선물세트 매출을 이끌었다. ‘싱글몰트 위스키 선물세트’ 매출은 764.5%, ‘버번 위스키 선물세트’는 346.7% 증가했다.

현대백화점도 최근 한 달여 간(8월13일-9월11일) 추석 선물세트 매출을 중간 집계한 결과 와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4% 올랐다.

위스키뿐 아니라 우리술 인기도 뜨겁다. 지난해 추석기간 신세계의 전통주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180%, 구매 고객 수는 70% 넘게 증가했고, 올해 내놓은

화요소주 협업 ‘KHEE 소주’ 선물세트는 론칭 일주일 만에 준비한 1300명이 모두 완판됐다.

신세계는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의 풍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일편만주’를 단독 출시하고, 양조학당의 보리소주 ‘에와 고구마 소주’ ‘시’도 내놨다. 이외 에도 백미를 원료로 만든 약주로 토종 소주를 내리고 배, 생강, 울금 등을 넣어 숙성시킨 문배주 명작 13만 원, 이강주 명작 세트 11만 원 등도 대표 상품이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장은 “이번 추석을 통해 우리 술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

“명절 전 협력사 정산금 챙겨주자” 유통업계 ‘조기 결제’로 상생경영

GS25 지급일 최대 20일 당겨 현대百 1만6000곳 조기 지급

추석 명절을 앞두고 편의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의 협력사 정산금 조기 결제가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함이다.

GS25는 추석을 앞두고 GS25 가맹경영주와 중소 파트너사에게 총 900억원 규모의 정산금과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GS25가 조기 집행하는 자금은 GS25 가맹 경영주 정산금과 GS25에 상품을 공급하는 파트너사의 물품 대금이다.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GS25는 가맹 경영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흑화고, 표고채 등으로 구성된 버섯 세트를 별도 제작하고, 추석 전에 전달할 예정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추석 을 맞아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추석에 조기 지급되는 정산금은 총 800억 규모로 상품과 물류 등을 거래하는 150여 개의 업체가 대상이다.

홈플러스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

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동을 돕고 동반성장 에 기여하기 위해 상품대금을 비롯한 각종 정산 비용을 앞당겨 16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 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회사 중심의 약 3000개 사다. 총 1171억 원 규모의 대금이 조기 지급된다. 총 지급 규모는 전년 추석 대비 약 28.7% 증가한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이들 중소 협력회사 대금을 정상지급일보다 평균 13일, 최대 14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16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ESG 경영’의 원년을 선언한 만큼 지난해보다 규모를 늘려 명절 대금을 조기 지급기로 결정했다”며 “협력회사가 없다면 홈플러스도 존재할 수 없기에,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일찌감치 지난해 중소 협력사들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2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1만 6000여 중소 협력사의 결제대금 7500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SSG닷컴 “제수음식도 간편식으로”

이마트와 SSG닷컴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음식 물량을 10% 가량 확대하고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는 22일까지 피코크 제수음식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을 증정한다. SSG닷컴은 상품권 증정 대신 5000원을 즉시 할인 판매한다. 행사상품은 피코크 모싯잎 송편(6980원/ 600g), 피코크 흰송편(6980원/ 600g), 피코크 오색꼬지전(7480원/380g) 등 40여 종이다. 손이 많이 가는 명절 음식을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에 데우기만 하면 일품 제수 음식이 완성된다. 사진제공 이마트

롯데제과 무설탕 ‘ZERO’ 프로젝트

쁘띠몽셀 제로 카카오 등 첫선

롯데제과가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무설탕 ‘ZER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3일 밝혔다.

‘ZERO’ 프로젝트는 당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에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사용해 무설탕 제품을 만든다. 프로젝트 대상 품목은 겉면에 ‘설탕은 제로, 달콤함은 그대로’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제품명 뒤에 ‘ZERO’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롯데제과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관

한 관심이 높아져 무설탕 제품 등 저당 제품이 인기를 끄는 점에 주목해 ZERO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제품

설계에서부터 배합까지 수많은 테스트를 실시해 대체감미료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제품의 맛과 풍미를 그대로 살렸다.

‘ZERO’ 프로젝트 실시와 함께 먼저 선보이는 제품은 2종으로 ‘쁘띠몽셀 제로 카카오’와 ‘가나 제로 아이스바’다. ‘쁘띠몽셀 제로 카카오’는 기존 ‘쁘띠몽셀 카카오’ 제품의 특징인 작고 아담한 크기를 살렸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유지했다.

‘가나 제로 아이스바’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초콜릿의 달콤함을 그대로 살리고 다채로운 식감을 위해 초코믹스와 초코퍼지, 초코코팅 등을 제품에 적용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美중시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기준〉

투자 종목 '절반'이 ETF... 서학개미 '머니무브'

SPDR S&P500 트러스트 1억3631만 달러어치 '최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리스크 테이킹 수단 ETF 각광

서학개미인 주부 이모 씨(36)는 지난 8월 갖고 있던 3000만 원어치의 애플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투자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있다. 최근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쿠팡을 저가 분할 매수하는 한편 S&P지수를 따르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

하반기 들어 해외ETF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정 종목에 베팅하기보다는 ETF를 통해 특정 산업군에 투자하면서 위험도 분산하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조기 긴축 신호가 거세지면서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ETF의 인기는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지난 10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순매수한 미국 증시 상장 종목 상위 10개 중 절반인 5개는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톱10 안에 든 ETF가 2개뿐이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알파벳

로 3억2101억 원을 순매수했다. 다음은 아마존(2억9634억 원), 마이크로소프트(1억9052억 원) 순이었다.

이어 SPY로 알려진 SPDR S&P500 트러스트(STANDARD AND POORS DEPOSITORY RECEIPTS) 1억3631만 달러를 사들이며 4위에 올랐고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SRS 1 ETF(INVSC QQQ TRUST SRS 1 ETF·QQQ)가 5위,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ProShares UltraPro QQQ·TQQQ)가 7위, 글로벌 X 리튬 ETF(Global X Lithium ETF)가 8위, 아이셰어즈 아이박스 USB 투자등급회사채 ETF(iShares iBoxx USD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가

9위에 오르는 등 10위권 내 절반이 ETF로 채워졌다.

SPY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최초의 ETF로 S&P500 지수를, QQQ와 TQQQ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고, LQD는 미국 달러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로 구성된 지수에 투자하는 ETF로, JP모건, 골드만삭스, 밴코브아메리카(BOA),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애플, AT&T 등의 회사채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테마 관련 ETF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선전한 상품은 글로벌 X 리튬 ETF로 서학개미들이 하반기에만 9265만 달러 순매수했다. 지난 20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한 미

국 ETF 전문 운용사 글로벌X가 선보인 상품으로, 리튬을 채굴하거나 정제, 공급하는 사업을 보유한 기업, 리튬을 활용해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또한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ETF(Roundhill Ball Metaverse ETF)는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30위에 올랐다. 미국 라운드힐인베스트먼트가 지난 6월 말 내놓은 상품으로 메타버스(현실 세계와 융합된 가상현실 세계) 관련 종목을 주로 담는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로 리스크 테이킹 수단으로 ETF가 각광을 받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외국인 '리브콜'에 포스코 시총 3.4兆 불었다

신용등급 상향·업황 개선 전망에 11거래일 연속 3887억 원어치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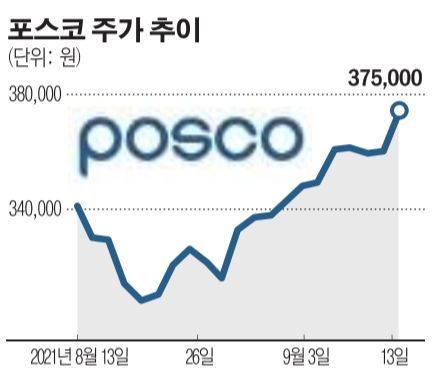
포스코가 외국인과 기관의 리브콜을 받고 있다.

13일 포스코는 전 거래일보다 4.17% 오른 37만50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포스코를 3887억 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 역시 861억 원을 순매수하며 포스코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4792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는 건 포스코의 신용등급 향상과 업황 개선 전망에 따른 투자로, 개인은 이익 실현에 따른 매도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포스코 집중 매수는 향후 예상되는 업황 턴어라운드를 겨냥한 선취매 성격이 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포스코를 본격 매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최경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탄소배출 규제 정책에 따른 조강생산 감소 기조는 국내 철강재 수입량의 50~60% 수준을 차지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공급을 감소시켜, 국내 철강산업 시장환경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열연판재 스프레드는 2021년 하반기 들어 1톤당 1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국내 철강사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은 포스코의 별도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을 전 분기 대비 31% 증가한 2조1140억 원으로 추정했다.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23% 늘어난 2조7099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전망치(컨센서스) 2조1970억 원 대비 23.3% 상회하는 수준이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불매운동에 신작 흥행 실패 '겍악재' '게임대장' 엔씨, 끝없는 추락

지난달 26일 이후 '연일 약세' 13일 2.46%↓ 60만 원선 붕괴 자사주 매입 카드도 무용지물

현재 5억~8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자사주 매입 카드도 통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7일 장마감 직후 "자사주 30만 주를 1899억 원에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엔씨소프트가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은 엔씨소프트의 주가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에서 돈을 많이 쓸수록 유리해지는 '페이 투 윈(Pay to win)'이라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과금 방식은 지난해 엔씨소프트가 사상 최초 매출 2조원을 올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게임 아이템 하나를 얻기 위해 수억 원을 써야 한다"는 논란이 일며 한때 불매운동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작 트릭스터M과 블레이드앤소울2가 리니지식 페이투윈 과금 모델을 그대로 채용하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투자자들이 싸늘하게 돌아선 것이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는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블소2 부진을 엔씨소프트는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출시 이후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비즈니스 모델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 조정은 신작에 그치는 것이 아닌 리니지M과 리니지2M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신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삼성증권, 추석 연휴에 '해외주식 데스크' 문 연다

24시간 환전 이벤트도

삼성증권은 올해 추석 연휴에도 고객들이 해외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 데스크'를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는 9월 미국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등 주목해야 할만한 글로벌 경제변수들이 많아 실시간으로 '투자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늘어난 니즈를 반영해 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하게 됐다.

해외주식 데스크 운영과 더불어 심야에도 환전할 수 있는 24시간 환전 서비스와 이벤트도 진행중에 있다.

해외주식 이벤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고객이 대상으로 먼저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1개월 간은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가 0%로 적용된다. 매도시에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징수하는 기타거래세(SEC FEE) 0.00051%가 부과된다.

연휴기간 해외주식 주문을 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데스크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스터 해외주식', '다함께 차차차' 등 양질의 해외주식 콘텐츠를 담은 영상을 주기적으로 실시간 진행 및 업로드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사진제공 삼성증권

NH투자증권 '銀 선물 ETN 2종' 신규 상장

NH투자증권은 코멕스(COMEX, Commodity Exchange)에 상장돼 있는 은 선물의 변동률을 추종하는 은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QV 레버리지 은 선물 ETN(H)'은 코멕스에 상장된 은 선물의 일간 변동률의 +2배를 추종하며, 'QV 인버스레버리지 은 선물 ETN(H)'은 -2배를 추종한다.

두 상품은 환헤지형 상품으로 손익은 기초지수의 변동에만 연동되며, 원·달러의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발행 수량은 100만 주, 발행 규모는 200억 원이며, 발행 가격은 2만 원으로 두 상품 모두 동일하다.

총 보수는 연 0.77%로 매일 최종지표가치(IV)에 일할 반영된다. 만기는 5년으로 만기일은 2026년 9월 8일이며, 최종거래일은 2026년 9월 4일이다. 최종거래일의 최종지표가치(IV)로 2026년 9월 10일 만기상환금이 지급된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신한금융투, 외화채권 온라인 매매 업데이트

신한금융투자는 외화채권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달러표시 해외채권 종목뿐만 아니라 헤알화표시 브라질국채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종목을 확대했다. 또 채권 종목 및 개별 금리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 기능과 국가별 국제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추가했다.

특히 채권을 처음 접하는 고객을 위해 채권가이드(채권투자/해외채권 시작하기)를 제공한다. 채권의 기본 개념과 용어, 투자방법과 투자위험뿐 아니라 중개과정 및 수수료, 투자금액별 현금흐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

김기동 신한금융투자 FICC영업본부장은 "기존에 고객이 직접 내방해 해외채권 매매를 해야 해서 사전에 채권 금리 및 환율과 같은 투자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 확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미국국채를 포함한 달러표시 해외채권을 모바일을 통해 100달러 이상 소액으로 매매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동서식품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보고 싶은 마음을
커피 한 잔에
가득 채워 봅니다

맥심과 함께
추석의 행복을 나누세요

Maxim.
커피라는 행복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경쟁률 594:1... 부산까지 번진 '생숙 광풍'

서울·청주 열풍 이어 부산 '서면 푸르지오 시그니처' 24만명 몰려 즉시 판매 가능해 '단타 투기' 성행... 與 '생숙 분양 금지법' 발의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광풍이 서울을 넘어 부산까지 번졌다. 주택보다 규제가 덜한 데 따른 반사이익이다. 과도한 청약 바람이 대안 주거시장까지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는 지난주 청약 신청을 받았다. 408실을 분양했는데 24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598대 1까지 올랐다. 인기가 많은 호실은 경쟁률이 3781대 1까지 치솟았다. 7~8일 이틀 간 있었던 청약 접수 기간도 하루 더 연장됐다. 열기가 과열되면서 청약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레지던시'로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투숙객이 장기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투숙객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숙박시설과 주택의 중간 형태라고 평가받는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각각 평균 경쟁률 657대 1, 평균 862대 1을 기록했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만 해도 같은 부산진구에서 7월 분양한 초읍동 '초읍하늘채 포레스윈' (평균 경쟁률 77대 1)보다 청약 경쟁이 더 치열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건 주택과 다른 규제 체계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된다. 누구나 청약을 신청

생활형 숙박시설

- 취사시설 등을 갖춰 장기 투숙이 가능한 숙박시설
- 취득·매매 시 주택 수에 미포함
- 청약통장 유무에 상관 없이 추첨제로 분양
- 분양계약 즉시 판매 가능
- 주거 용도 사용금지

최근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성적 (평균 경쟁률)

부산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598대 1
서울 '롯데캐슬 르웨스트'	657대 1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862대 1

할 수 있고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다. 분양권도 분양 계약을 맺는 즉시 전매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만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만 받으면 단타로 차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기 좋은 구조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는 건분 주택마다 분양권을 사려는 '찐다방' (이동식 중개업소)이 성행하는 이유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에서도 당첨자가 발



표된 다음 날부터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다. 방 세 개까지 객실은 1억 원까지 웃돈이 붙는다. 부동산 업계는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에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연초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안 주거 상품으로 띄워왔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선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 4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하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바꿨다. 일반 주택처럼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거나 전세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당에선 한 발 더 나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호실별로 분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정책환경과 시장 분위기가 엇나가는 상황에서 자칫 생활형 숙박시설 시장이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거 용도 사용이 금지된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수요층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은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완공 무렵엔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거품만 커질 수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年 3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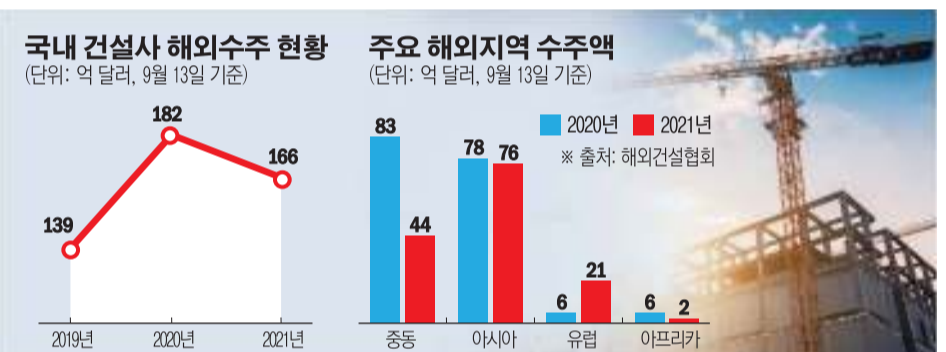
'중동發 수주가뭉' 해외건설 목표액 달성 빨간불

건설사 코로나로 '장기침체 늪' 현 수주액, 166억 달러 10% ↓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주시장의 장기 침체와 발주량 감소 등으로 또다시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는 목표액인 300억 달러 달성 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166억 달러(약 19조5033억 원)를 기록하고 있다. 13년 만에 최악의 수주실적을 기록한 2019년 동기(139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전년 동기(182억 달러)보다는 10% 가까이 감소했다. 수주건수(331건)는 전년 동기(375건)보다 12% 줄었고, 진출 국가(83곳) 역시 9% 줄어 총체적인 부진을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중동 국가 내 수주액 급감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인 중동 수주 규모는 현재 44억 달러로 작년 동기 실적(83억 달러)의 반토막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사실상 중동지역의 수주 가뭄이 전체 시장 부진으로 이어진 셈이다. 그 외 아시아 78억→76억 달러 △태평양·북미 5억→15억 달러 △아프리카 6억→2억 달러 △중남미 3억→7억 달러로 미미한 변동폭을 보였다. 그나마 유럽에선 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연간 수주액(16억 달러)보다도 많은 수주액을



손에 넣었다. 해외건설 수주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발주량이 줄어서다. 국제유가가 최근 70달러를 밀돌 만큼 높아졌지만 저유가가 워낙 장기간 지속돼 중동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발주 계획 역시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대면 영업 활동이 위축된 것도 큰 걸림돌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 자체도 지연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에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변이 확산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앞으로의 영업활동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메가톤급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않는 이상 전년 연간 실

적(351억 달러)을 뛰어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연말까지 190억 달러에 가까운 수주액을 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방된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300억 달러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세 일즈 외교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사업 기회 발굴이나 금융 지원도 이동의 자유와 영업활동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손 연구원은 "악화하는 해외건설 수주시장을 타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게 사실이나 업계와 정부가 꺼낼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다만 발주처들의 사업 계획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 파이낸싱과 인력 운영 계획 등 입찰 준비 시스템을 미리 갖춰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전세난민 "내집마련 차선책" 서울 빌라거래, 아파트 추월

서울 아파트값이 전성부지로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은 빌라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올해 들어선 거래량 역전현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빌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



가 늘면서 빌라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평균 빌라 매매가격은 3억4629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2억6598만 원)과 비교하면 30.2% 올랐다. 시장에서 빌라를 찾는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아파트와 비교하면 저렴한 데다, 오세훈 서울시 시장 취임으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묻자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광창역 도시와공간 대표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환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끌'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재개발 투자처로 잘 알려진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수자가 주의하지 않고 구매했다간 건물값만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20~30대 수요자들의 빌라 매입 문의가 꾸준하다"며 "재개발 초기 빌라를 매입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투자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빌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면서 빌라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평균 빌라 매매가격은 3억4629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2억6598만 원)과 비교하면 30.2% 올랐다. 시장에서 빌라를 찾는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아파트와 비교하면 저렴한 데다, 오세훈 서울시 시장 취임으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묻자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광창역 도시와공간 대표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환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끌'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재개발 투자처로 잘 알려진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수자가 주의하지 않고 구매했다간 건물값만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현대ENG·GS건설, 좌천·범일 통합2지구 수주

"부산역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

현대엔지니어링이 GS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약 7200억 원 규모 부산 좌천·범일 통합 2지구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컨소시엄은 12일 열린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찰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좌천동 68-119번지 일대 4만661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57층 규모 공동주택 8개 동 1937가구와 오피스텔 703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7183억 원이다.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부산지하철 1

호선 좌천역과 약 250m 떨어진 곳에 있어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 인근 복합 재개발 사업과 미군 55보급창 이전 등 사업장 주변 개발 호재도 많아 앞으로 부산역 인근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시정비사업 시장 진출 이후 지난해 총 수주액 1조4166억 원을 달성해 '정비사업 수주 1조 원'을 처음 기록했다. 올해는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실적까지 뛰어넘은 1조4500여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GS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약 2조6400여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대구 서문지구와 창원 신월1구역, 대전 도마변동12, 부산 서금사5구역, 대전 성남동 3구역



부산 동구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감도. 재개발 등 지방 도시정비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양사의 풍부한 사업 경험과 뛰어난 시공 능력을 발휘해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를 부산역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10년간 시민단체 지원액 1兆… 서울시 ATM 전략”

감사위, 사회주택 추진·태양광 보급사업 등 27곳 조사
오세훈 시장 “시민 혈세로 사익 좇는 행태 청산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등 시민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싹짓듯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좇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에 “서울시 곳곳은 시민단체의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기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7건이다. 노

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적, 사회주택 추진, 태양광 보급사업, 청년활력 공간, 창동 플랫폼 운영실태 조사 등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민단체형 단단계’라고 비유하며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민사회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중개

소’를 만들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 지원 조직이 돼 다른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원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 관련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를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용자까지 해줬다”며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용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며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사회투자기금 관련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며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다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수장인 제계 주어진 책무이며 시의회에

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 백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급적이면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 가되 당초 목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예산 누수를 수반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이 생겨났고 기존 수혜자들도 있어 쉽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백지화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와 관련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홍인석 기자 mystic@



제주 앞바다 거친 파도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의 간접영향권에 접어든 13일 제주 서귀포시 예레동 인근 앞바다에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찬투가 오는 16일 오전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하며 진로가 정체될 것으로 예측했다. 뉴시스

태풍 ‘찬투’ 북상… 제주·남부 물폭탄 예상

제14호태풍 ‘찬투’(CHANTHU)의 영향으로 이번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는 16일 전후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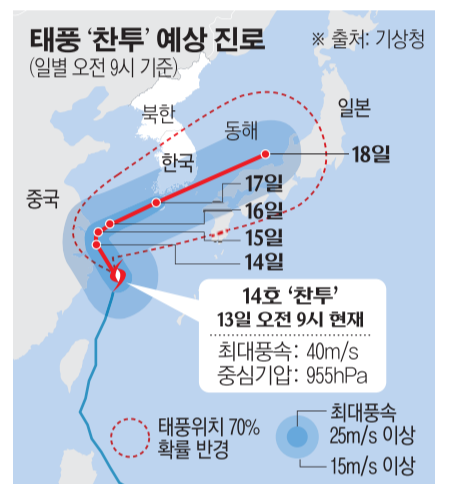
13일 기상청은 이날 제주에 시간당 30~50mm, 14~15일은 시간당 50~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제주도남쪽해상에 발달한 비구름대가 30km/h로 점차 북상하면서 낮부터 비가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부근에 강한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14~15일에 많은 양의 집중되는 만큼 비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밤부터 전남남해안을 시작으로 전남권과 전북남부, 경남권, 경북권남부에도 14~15일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태풍의 북서쪽에 형성된 고기압에 의해 태풍을 이끄는 지향류(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흐름)가 약해지면서 태풍이 상하이 부근에 머물게 된다”고 했다.



태풍이 상하이 부근에 정체할 때 지표 마찰 효과와 해수면 온도 감소가 더해지면 서강도는 잠시 약화될 수 있지만, 15~16일부터 이동하면서 태풍은 다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6일에는 태풍 찬투 영향을 받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박은평 기자 pepe@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 조세소송 2심도 승소

법원 “사업 독립적으로 영위... 특수관계 과점주주 아냐”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수십억 원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형정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롯데손해보험·우리홈쇼핑이 용산구청 등 22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38억여 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호텔롯데는 2015년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롯데손해보험·우리홈쇼핑 등 롯데그룹 4개 계열사와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를 체결했다. 이들 계열사는 롯데렌탈의 지분 50%를 나눠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외부 투자자가 지게 됐다.

이후 용산구청·공주시청 등 22개 지자체는 이들 5개 계열사가 주식 총수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5개 계열사는 KT금호렌탈 보유 지분이 50%인 만큼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나머지 절반에 달하는 주식의 명의를 외부투자자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 행사 권한은 롯데 쪽에 있어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롯데그룹의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라며 “롯데그룹이 계열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롯데 계열사가 외부 투자자와 주식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것은 세금 회피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TRS 계약은 파생금융거래 중 하나로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금융거래계약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TRS 계약은 롯데 계열사가 적은 투자금으로 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투자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주 활용되는 금융기법”이라며 “해당 계약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처리과정 검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교육부가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의 처리 과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가 김 씨의 박사학위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지적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김 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 과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으나 마찬가지로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날 교육부는 12~17세 소아·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무화보다는 자율 기반의 접종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이날 중구체적인 접종 대상과 시기, 순서, 종류 등을 포함한 12~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제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진술 했다.

김 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택배기사인 것처럼 현관문을 두드린 뒤 A 씨 여동생이 문을 열자 위협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살해했다. 이어 밤늦게 귀가한 어머니를 A 씨를 차로 살해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대법,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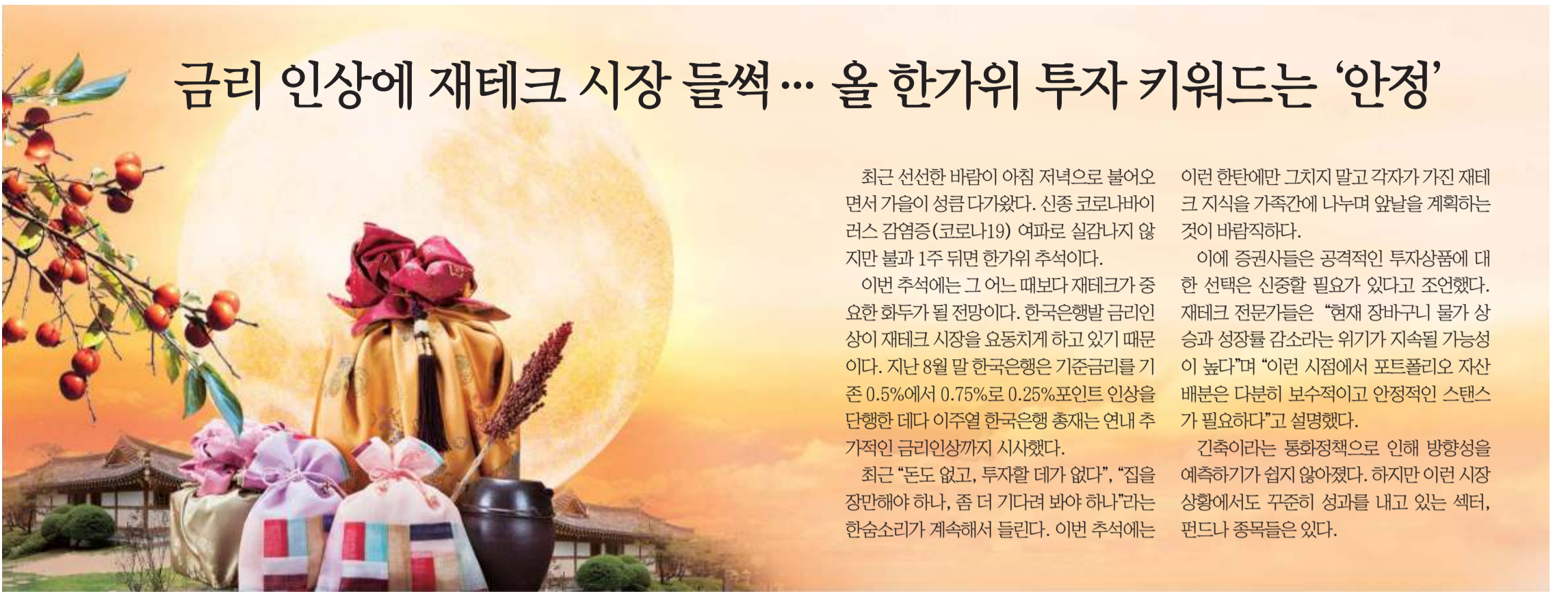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미뤄온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금리 인상에 재테크 시장 들썩... 올 한가위 투자 키워드는 '안정'

최근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감나지 않지만 불과 1주 뒤면 한가위 추석이다.

이번 추석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테크가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발 금리인상이 재테크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까지 시사했다.

최근 "돈도 없고, 투자할 데가 없다", "집을 장만해야 하나, 좀 더 기다려 봐야 하나"라는 한숨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이번 추석에는

이런 한탄에만 그치지 말고 각자가 가진 재테크 지식을 가족간에 나누며 앞날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증권사들은 공격적인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현재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성장률 감소라는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은 다분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긴축이라는 통화정책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섹터, 펀드나 종목들은 있다.

AI·자율주행 등 잠재력 보유 신성장산업 주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핵심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은 굴뚝 산업에서 첨단 정보기술 산업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신성장 산업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다.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는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IT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산업 내 높은 성장에 예상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IT기업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펀드 종목은 제품 경쟁력, 시장 점유율,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KOSPI와 KOSDAQ 종목이



모두 포함되며 주로 반도체, 2차전지, 5G 통신장비 등 IT 관련 종목으로 구성한다. 단기적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리밸런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본부 팀장은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체 시장지수보다는 섹터, 섹터 내에서도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IT 관련 기업에 집중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펀드 가입은 매 영업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 영업점 혹은 홈페이지, 온라인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속 가능 글로벌 기업 투자를 미래 유산으로"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하나금융투자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에 장기 투자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한 '증여랩'을 추천했다.

'증여랩'은 미국 대표 경제지인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가운데 펀더멘털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한다.

또 투자 가치,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은 물론 사회적 책임 부담이 주요 고려 요소로, 전세계의 화두인 ESG 평가 점수는 최종 포트폴리오 선정의 핵심이다. '지속가능성'과 '증여'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증여랩'은 대표 글로벌 기업에 장기 투자해 증여는 물론 ESG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자 하나금융투자의 ESG역량 강화에 유의미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증여랩'은 금융상품을 증여해 가족의 미래에 보탬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고객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장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팀장은 "증여는 이제 필수로서 자산관리에 있어 기본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시간가치와 절세의 측면에서 증여는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여랩'은 우수기업을 매수해 장기보유하는 '장기보유형'과 시장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자산배분형' 두 가지로 출시됐다. 최저 가입 한도는 장기보유형과 자산배분형이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다.

탄탄한 ESG 기반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

한국투자증권

ESG위원회 출범

한국투자증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친환경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둔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실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은 연결 기준 순이익 5834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260.3% 늘어난 수치이자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는 부실 사모펀드 전액 보상 결정에 따른 총담금 약 600억 원이 일회성 손실로 반영된 실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뛰어난 수익성 △경영 효율성 △고도화된 리스크관리 등을 꼽았다. 사모펀드 보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ESG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부실 사모펀드 10개 상품에 대한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2개월에 걸쳐 모든 보상 업무를 마무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보상 결정을 계기로 기업 문화도 바뀌고 있다. 전 임직원이 '고객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5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ESG 사업 추진을 위해 ESG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ESG위원회'를 출범했다. ESG위원회는 정일문 사장을 비롯해 사외이사인 김태원 구글코리아전무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교수로 이루어졌다.

ESG위원회는 △친환경 기업투자 △ESG 채권 인수·상품출시 △동반성장·상생가치 실현 △포용적금융·사회공헌 확대 등을 중점사업으로 뒀다. 비재무적 요소인 사회와 환경 관련 이슈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출시 확대에 2차전지·BBIG 지수 투자

삼성증권

K-뉴딜 ETN 4종

삼성증권은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와 KRX BBIG K-뉴딜 지수를 추종하는 ETN 4종을 상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TN 4종은 '삼성 KRX 2차전지 K-뉴딜 ETN', '삼성 KRX 레버리지 2차전지 K-뉴딜 ETN', '삼성 KRX BBIG K-뉴딜 ETN', '삼성 KRX 레버리지 BBIG K-뉴딜 ETN'이다.

이중 업계 최초로 2차전지와 BBIG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해당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2차전지 산업군 내 대표기업 10종목을 구성 종목으로 하는 지수로 주요 2차전지(Cell) 생산업체 및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가 포함돼 있다. 7월말 기준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종목으로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등이 있다.

하반기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출시 확대와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 강화 등 배터리 수요 증가로 2



차전지 산업은 긍정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으로 2차전지 산업군에 집중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ETN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소액으로도 여러 종목을 분산하여 매수할 수 있는 ETN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KRX BBIG K-뉴딜 지수는 한국주식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산업인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총 4개 산업군 내 대표기업 3종목씩 총 12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7월 말 기준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종목으로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등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에 분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ETN이다.

국내 운용사 최초 MSCI 체계...친환경 성장 기업에 집중

NH투자증권

NH-Amundi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



NH투자증권은 'NH-Amundi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를 추천했다.

NH-Amundi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는 '그린(환경)' 투자에 중점을 두는 국내주식형 ESG 상품이다.

이 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임팩트 펀드를 운용하는 NH-Amundi의 전문 역량과 유럽 ESG 투자를 선도하는 Amundi의 평가방법론과 투자전략을 반영하여 ESG 완성도를 높였다.

국내 운용사 가운데 최초로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된 MSCI 벤치마크를 도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MSCI 체계는 국내 평가사들과 달리 세부적인 평가 내용 확인과 글로벌 동일 업종 기업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이 펀드는 국내주식형 ESG 상품이다. 미래 산업 환경 변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ESG 종합평가가 우수한 지속가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 친환경, 플랫폼, 헬스케어 등 지속가능한 성장 영역으로 보고, 해당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다.

특히 장기 투자테마로 기대되는 2차 전지,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관련 기업에 펀드 자산의 약 30~60%를 투자한다.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을 기본으로 투자되되, 현재는 ESG 관점에서 열위에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재평가에도 주목한다.

특히 친환경 성장 부문에 접점을 갖고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들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 주가 역시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운용(모)펀드 기준 설정액은 2693억 원(순자산 3450억 원), 설정후 수익률은 29.55%이다. 8월 말 기준 그룹차원의 초기투자자금을 제외하고 약 4800억 원이 리테일 판매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 됐다.

박진호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장은 "2차전지, 전기차,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업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골라준 국내외 유망펀드에 분산투자

탄소중립 시대 '2차전지株'에 레버리지 투자

메리츠증권

메리츠펀드마스터Wrap

메리츠증권은 국내,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메리츠펀드마스터Wrap'을 추천했다. '메리츠펀드마스터Wrap'은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펀드를 고르고 운용하는 랩어카운트이다.

펀드 가입 후에도 최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국내외 증시상황에 따라 펀드를 환매 또는 교체하는 시점이 고민되거나 자신이 없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펀드 교체 시마다 환매 후 재가입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한 번의 일일계약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해당 랩 서비스는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와 상품부서가 협업해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와 시장 전망에 따라 투자하기 유망한 자산과 국가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펀드 전문가들이 운용성과와 철학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결정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모멘텀 및 밸류에이션이 우수한 펀드 5~6개를 선정해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월 자산배분전략 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산의 리밸런싱을 실시하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

특히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는 이경수 센터장이 부임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평가에 5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이 되는 등 '차세대 리서치명가'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점이 국내·외 우량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며 적립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별도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계약 시 정한 일정한 수익률 도달 시 통보하는 알림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KB증권

KB 레버리지 KRX 2차전지 K-뉴딜 ETN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까지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KB증권은 2차전지 및 소재 생산업체를 편입 대상으로 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 KRX 2차전지 K-뉴딜지수에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KB 레버리지 KRX 2차전지 K-뉴딜 ETN'을 8월 18일 상장했다.

'KB 레버리지 KRX 2차전지 K-뉴딜 ETN'은 KRX 2차전지 K-뉴딜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지수로 한다. 이는 KRX 2차전지 K-뉴딜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지수다.

2차전지는 테슬라의 급성장으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2차전지 산업 또한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2030년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유럽과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강력한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 정책 기조에 맞춰 글로벌 양산 차 업체



들은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성공의 관건으로 꼽히는 2차전지 산업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2차전지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K-뉴딜 세부지수인 'KRX 2차전지 K-뉴딜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내에서 2차전지 및 소재 생산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유가증권시장 내 2차전지 관련 대형주와 예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솔브레인 등 코스닥에 상장된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로 구성됐다.

시장에서는 이미 'KRX 2차전지 K-뉴딜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다수 출시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에 관한 관심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리츠·부동산 공모펀드 엄선해 배당수익

'ESG 지속가능 기업'에 선별 투자해 초과수익

대신증권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코로나 사태 악화, 외국인 수급 악화 그리고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대신증권은 국내 상장 리츠, 부동산 공모펀드 등 인컴형 자산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을 추천 상품으로 소개했다.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은 배당 성향이 높은 리츠 및 부동산 공모펀드를 엄선해 투자한다.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고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익도 누릴 수 있다. 오피스, 상업시설, 임대주택 등 부동산 섹터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투자대상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부동산팀이 발간하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분석 리포트와 대신경제연구소가 제공하는 리츠 및 부동산 펀드 킷 분석을 통해 선정한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장기 임대와 높은 신용도의 임차인을 두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이외에 대체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고객, 인컴수익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 은퇴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리츠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 진입 초기에 있는 대한민국도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의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 원이다. 최소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중도해지 시 추가수수료 부담이 없다. 일일 수수료는 선취형의 경우 선취수수료 1%와 후취수수료 연 0.3%이고, 후취형은 후취수수료 연 0.7%이다.

윤석영 대신증권 랩사업부장은 "랩 어카운트는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높고, 계좌별로 운용을 하기에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다양한 부동산에 직,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이 투자자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펀드

신한금융투자는 높은 수준의 기업 책임을 가진 회사에 투자해 투자수익 보호 및 강화를 추구하는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펀드'를 추천했다.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펀드'는 ESG요소들을 투자에 반영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하고 단순히 '착한기업'이 아닌 빈틈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앞선 부분의 리스크 발생을 인지하고 비재무적인 위험 모니터링 강화 및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진화된 투자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ESG를 고려한 투자를 위해 재무적 요소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투자에 접근한다.

환경 요소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환경 규제와 좌초자산 등의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회피하며 그린뉴딜 수혜주, 기업별 배출권 구매비용 등 규제준수비용 관련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적 요소의 경우 인적자원, 브랜드 이미지 등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영 토대를 점검해 투자이사 결정에 반영한다. 또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주주 친화적 경영정책 수립, 내부통제체제 및



감시기구를 보유하며 기업활동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펀드는 기존 ESG평가를 통한 접근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70%를 투자한다. 이를 통해 위험대비 수익률 증가를 목표로 한다. 또 ESG관련 다양한 이슈, 테마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30%를 투자하며 정부 정책 및 환경 규제 수혜주에 집중된 선별 투자로 초과수익을 목표로 한다.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펀드는 책임투자를 통해 고객, 사회, 환경을 대하는 철학과 목표의식이 확고하며 사회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철저한 재무분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ESG분석을 결합해 단기적 변수에 적응력이 높고 장기 성과를 높이는 포트폴리오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의 부담 덜어주는 All Care 간병보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All Care 해주는
늘곁에 간병보험으로 미리 준비해주세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All Care 해주는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무)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을 검색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2902호 (2021-07-27 ~ 2022-07-26)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1-07-104 제작부서: 브랜드운영팀(2021.07)



돌다리도 두들겨라

“리스크를 이해하는 방법과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가능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리스크 감수(risk-taking)를 현대 서구사회를 이끌어가는 기폭제로 바꿨다. 그들의 업적이 힘입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승부와 도박을 경제성장으로 연결했고,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투자 전문가인 피터 L. 번스타인이 그의 책 ‘리스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위험감수야말로 현대 서구사회를 이끌어가는 기폭제”라고 강조한다. 무작위로 던져지는 주사위에, 완두콩의 크기에,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에, 주가의 등락에, 부에 대한 기대심리와 손실 기피감에 어떤 패턴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관한 얘기다. 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원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은 ‘리스크’ 속 얘기처럼 보다 나은 미래를 연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벌려면 높은 리스크가 뒤따른다. 리스크는 투자의 본질이다. 주식시장이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의 대표주자다. 단 하루 만에 상한가로 30%의 수익을 낼 수도, 하한가로 30%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파생상품 시장은 또 어떤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부장



가. 수익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같은 금액의 손실이 있는 ‘제로섬’ 시장이다. 그런데도 왜 주변에서 늘 한숨 소리가 더 클까. 많은 사람이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남들은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나만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귀동냥으로 투자를 해 소소한 수익을 낸 것이 그들에게는 독이다. 여기에서 리딩방 같은 유사자문업체를 기웃하다 자신이 전문가가 된 듯 생각한다. 착각이다. 흔히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본질은 탐욕이다. ‘주린이(주식 초보자)’ 열 명 중 일곱여명 명은 탐욕이 앞선 나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의 정도(확률)를 따지지 않고 기뻐감만 보고 투자한다.

타짜라 불리는 도박사들의 승부를 그린 영화 ‘타짜3 원 아이드 잭’. 여기서 묘사된 타짜들은 승부에 앞서 상대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습관, 성향, 자금력 등 상대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기초로 도박판에 앉도록 유인한다. 이에 더해 상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승부욕을 자극해 자신들이 승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 현란한 기술로 상대의 돈을

취한다. 이처럼 치밀하게 설계된 판에서 기술까지 출중한 타짜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박판이라는 카지노가 이런데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자, 작전세력, 전업투자자들이 벌이는 전쟁판(주식시장)에 무턱대고 뛰어들어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물자 투자자를 대표하는 추세 추종자들은 나름 항변한다. 수업료 개념의 ‘매물비용’이 필요하다. 전설적인 수익률을 올려 현대 추세추종매매를 대표하는 에드 세이코타는 다음 같은 말을 했다.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돈을 벌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쉬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큰 파도가 일어만 파도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파도타기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추세추종 철학에서는 실패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원시적 방식이 현재도 유효한 것은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서핑을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큰 파도에서 초보자들은 제 몸 기능기조차 힘들다. 모래밭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익힌 후 작은 파도부터 타야 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승패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벼락부자’를 꿈꾸는 욕심이 있어서 동서고금에 도박이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칙과 데이터가 말해 준다. kmh@

시설

스타트업 꺾는 플랫폼 과잉규제는 안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10건 가까운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을 내놓고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밀어붙일 움직임을 보인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와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플랫폼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김범수 카카오톡 이사회의장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를 누락해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빅테크나 핀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의 특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의 배경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미 몸집이 커진 플랫폼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을 통한 ‘갑질’이다. 특히 카카오는 무차별로 사업영역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17개, 해외 41개 등 계열사가 158개에 이른다. 금융·교통·쇼핑·엔터테인먼트·IT서비스 등 전방위로 뻗어나가면서 5년 전 78개에서 배로 늘어났다. 혁신보다는 기존 사업자 인수로 택시와 대리운전, 영어교육, 미용실, 꽃배달, 스크린골프, 장례서비스까지 진출해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말썽이 커지고 여

론도 악화하자 김범수 의장은 조만간 상생방안 발표와 함께 소상공인들과 부딪히는 일부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플랫폼 때리기가 독과점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혁신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과잉규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연 ‘플랫폼 피해업체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부동산중개 서비스 ‘직방’ 등도 불려나왔다. 혁신 서비스 개발로 기존 직종과 경쟁에 나선 스타트업들이다. 여당의 규제 드라이브는 결국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기업과 기록권을 가진 전문 직종, 대규모 유권자 집단인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얘기가 많다.

대형 플랫폼이 독점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키운다면 응당 규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 중인 규제는 빅테크뿐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로 겨우 성장성을 갖춰가고 있는 스타트업까지 주저앉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선부른 과잉규제로 스타트업이 꺾이면 결국 소비자 편익과도 거꾸로 간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갈수록 어려워진다. 분명한 것은 규제로 신산업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한 국내 플랫폼 산업은 아직 규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노트북을 열며

송영록
산업부 차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미래

근 한 달 만에 12.55% 감소했다. 4분기 D램 가격이 전 분기에 비해 크게는 5%가량 하락할 것이라 관측도 나왔다.

과거처럼 불황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단기간에 업황이 꺾일 분위기는 아니다. 올 상반기 두 회사는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던 2018년 상반기와 근접한 매출을 기록했다. 3분기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하락세가 가장 큰 제품은 전체에서 약 15%에 불과한 PC용 D램이다. 게다가 전년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D램 제품 가격은 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락해 왔다. 가격 하락이 특별한 사건(?)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요건을 갖췄다. 차세대 D램 규격인 DDR (Double Data Rate)5로의 세대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교체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 가격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열풍만 보더라도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충분히 보인다.

메타버스를 위한 서버 D램 수요는 물론, 페이스북의 ‘오culus 퀘스트2’ 등 새로운 기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메모리반도체 호황을 촉발한 굵직한 사건의 뒤를 메타버스가 충분히 이을 수 있다.

2018년 기자가 인터뷰한 당시 남기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호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수요가 얼마나 클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 호황기가 2-3년 이내에 주춤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말처럼 시장은 슈퍼호황기와 불황기를 거쳤지만, 불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다시 호황기를 맞았다.

일부 비관론처럼 불황기가 온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극심한 불황이라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는 정도가 맞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파생된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이 수요를 꾸준히 일으키고 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비관론보다는 긍정론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수많은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이 더 오랫동안 메모리 호황의 열매를 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yr@

특허, 특!

특허침해 발견 시 대응전략

보통 특허 출원만 하면 제3자의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허 출원 이후 제3자의 침해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 출원 중인 상태에서 침해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이며, 나머지 하나는 등록된 이후 침해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이다. 엄밀하게는 등록 전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편의상 잠재적인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우선 특허 출원 중인 상태에서 제3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변리사를 통하여 제3자의 실시 발명이 출원된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침해가 성립한다면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가 공개된 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추후 특허 등록 이후 경고 시점부터 등록 시까지의 기간의 실시에 대하여 실시료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출원 상태에서는 권리 범위가 심사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고장 내용의 수

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제3자의 거래처들에 무분별하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영업방해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허권 획득 이후 변리사의 검토에 의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경고장 발송 및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등록 특허의 권리 안전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즉, 등록 특허에 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하여 무효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 특허가 있더라도 분할 출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 제품의 스펙에 타기팅을 하여 청구항을 수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다. 특히 분할출원을 통하여 복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무효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므로 소송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로 구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아름다운 풍경은 대한민국의 유산이기에

푸르게 가꿔진 숲과 산
티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까지
변함없이 전해주고 싶어서
마음껏 누리게 하고 싶어서

KB는 탄소줄이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푸르름을 지켜나가는
Net Zero S.T.A.R. 전략을 실천합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내일
KB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Net Zero S.T.A.R.”는 친환경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파리기후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환경을 복원하여 2050년까지 그룹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는 KB의 탄소중립 전략입니다

